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vol. **37**

Cover Story

효석 <새로운 시작(2024)>
Oil on canvas 651×530mm

효석 작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주식회사 느티나무의사랑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다. 그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편견을 작품을 통해 깨트리고 있다. 순수함과 따뜻한 시선, 화려한 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전국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 예술작품 공모전 대상, 부산 지적발달장애인 공모전 대상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하였으며 지난 1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개인전 ‘환상의 도시展’을 개최하였다. <새로운 시작>은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새로이 돌아나는 것, 생동하는 것을 표현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발행인 예경탁
발행일 2024. 8. 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Tel. 055 285 56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편집인 석수근
진 행 손수나
기획·디자인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055 296 4995)



CONTENTS

스페셜 인터뷰	04	문화예술이 풍부한 재미있는 경남을 위해 -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이정곤 국장
스페셜 테마	08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보금자리 - 느티나무의사랑 정선희 대표
아름다운 동행	12	경남 문화예술의 소금이 되다 - 인산가 × 코리아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16	모두가 즐기는 ‘음악’이란 열매 - 경남스틸 × 경남재즈오케스트라
메세나 인터뷰	20	지역의 문화예술 가치가 올라가면 기업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 무학 최재호 회장
	24	조직혁신으로 만들어 갈 미래 100년 - 고성오광대보존회 황종욱 부회장
지금 경남예술	28	“누구나 양질의 예술 콘텐츠를 누리는 즐거운 공간” - 경남도립미술관 박금숙 관장
	32	2024 경남국제아트페어 Find Your Own Art!
포토포엠	34	대산면 우영우 팽나무 by.김관수 대표
문화공간	36	“커피가 아니라 공간을 팝니다.” - 브라운핸즈 라키비움 남해
	38	동네책방으로 북캉스 떠나요 - 청학서점, 하동책방
메세나 소식	40	2024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이사회·정기총회 개최
	41	2024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시행
	42	경남메세나협회 - 경남도립미술관 ‘문화협력 협약’ 체결 경남메세나협회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남메세나협회 -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인조이 컬러	44	사랑한다면 풍파두르 부인처럼
	46	예술성과 대중적 흥행을 모두 이룬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
	48	Player’s Playlist



청년이 주도하고 도민이 함께 누리는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

문화예술이 풍부한 재미있는 경남을 위해

🗣️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이정곤 국장

경상남도는 지난 6월 청년이 주도하고 도민이 함께 누리는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경남의 문화예술 비전과 분야별 중장기 문화예술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남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경남만의 문화예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함께하며 경남 문화예술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이정곤 국장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문화예술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과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다.



1 — 지난 4월 18일 열린 경남문화예술 청년기획위원회 발대식 모습

Q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청년이 주도하고 도민이 함께 누리는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으로 하나 되는 경남’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 「경남문화예술 비전 2030」은 6개 목표와 8대 추진 전략, 47개 실행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먼저 ‘청년’에 주목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 문화예술 청년기획위원회 발족, 청년 아트페스티벌 개최, 경상남도 문화상 청년 부문 개설, 청년 예술인 맞춤형 창작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체성’으로, 경남문화예술 주간 운영, 경남합창제 운영, 세계민속문화축제 개최, 경남형 문화가 있는 날 등을 진행하여 경남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도민’으로, 경남 문화 택배 사업,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 경남 문화예술 정보 통합 플랫폼 등을 실현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좁힘으로써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취지다. ‘역사문화유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홍보, 제송당 정비 및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경남의 역사문화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시키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키워드인 ‘콘텐츠’를 위해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을 조성하고 (재)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등 문화콘텐츠를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생태계’도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경남형 문화예술 ESG 정책, 기업과 연계한 청년·장애 예술인 지원사업, 경남형 문화예술작품 구독 서비스 등을 실현해 기업인과 예술인이 동행하는 경남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인프라’를 위해 예술과 기술 융합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 및 지역 분산식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검토함으로써 각지에 있는 유휴공간을 창작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 키워드는 ‘파트너십’이다. 경남문화예술 진흥협의체 구성, 경남예술인대회, 가야정책포럼 등 지역의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역사문화예술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Q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동안 경남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중장기 계획이 전무했다. 그런 상황에서 관행대로 파트별로 지원을 해왔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정에 접어들면서, 도내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와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융성한 문화’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때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끝에 이런 비전을 발표할 수 있었다.

사실 경남은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남문화예술 비전 2030」을 계기로 예산을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전국 평균까지 끌어올려 경남에 융성한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Q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중요했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흔히 하는 오류가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쳤다. 가장 먼저 문화예술계 전문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경남 문화예술 전문가 자문 회의, 경남 문화예술 진흥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귀담아들었다. 이런 노력 끝에 문화예술 유관기관과 함께 세부 실행 과제 47건을 발굴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문화예술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새겨들을 예정이다.

Q 다른 세대보다 '청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이며, 청년 세대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청년'이 주축하고 '도민'이 함께 누리는 비전이다. 청년을 강조한 이유는 청년이 경남 문화예술의 미래이자 비전이기 때문이다. 도내 청년층 유출을 막고 청년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하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경남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 18일부터 「경남문화예술 청년기획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스무 명의 청년과 도 문화예술과장을 포함한 스물한 명의



위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이 타당할 때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군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청년들이 빠르게 알고 그와 연계한 문화예술 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 행사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 내년에 개최될 청년 아트페스티벌 역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 예정이라 청년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공모사업 시 청년 할당제와 가점제를 추가하고, 경상남도 문화상에 청년 부문을 추가하는 등 청년들의 예술활동에도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고 활동할 기회도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Q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소외지역 문제에도 본격적으로 접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달라.

경남은 문화접근성이 굉장히 낮다. 농촌지역도 많을뿐더러 도시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낮은 곳이 많아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 택배 사업과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을 통해 경남의 소장품을 경남 각지에 찾아가 보여주거나 경남의 뛰어난 문화예술 공연을 각지에 찾아가 보여주고자 한다. 엄정한 심사료 선정된 품격 있는 도민예술단이 군지역에 가서 공연을 펼치고, 도립미술관 작품을 순회 전시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소외지역에 청년 예술인들을 연계한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 사업을 추진해 청년 예술인의 예술활동도 확산시켜 나가겠다.

Q 지속가능한 생태계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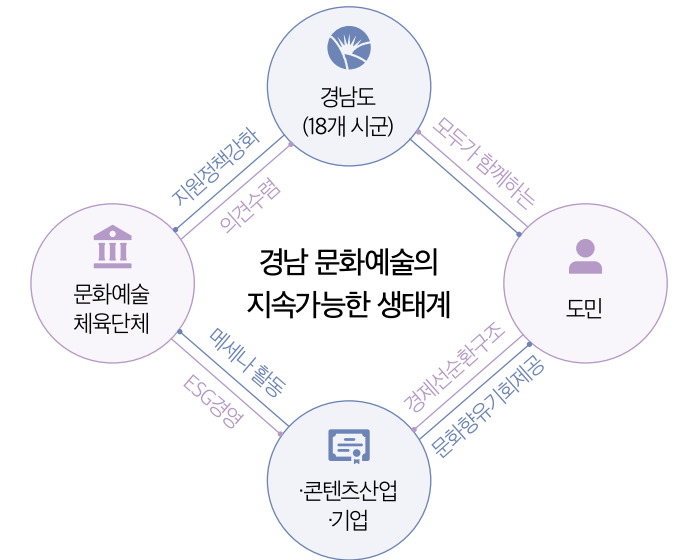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의 생태계란 지역 문화예술인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행정적 지원과 기업의 후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생동감 있는 문화예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뜻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분야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생태계'는 청년을 비롯한 문화예술가, 기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연속적이고 선순환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문화예술 단체와 기업은 메세나 활동과 ESG 경영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도민은 문화 향유 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경남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경남문화예술비전 2030」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Q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에 대해 경남의 많은 메세나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

최근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ESG 경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와 예술 후원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경남형 문화예술 ESG 정책'을 도입해 기업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경남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인 청년과 장애인에 대해 기업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작품을 전시 또는 구독하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매칭펀드 사업도 확대 운영함으로써 많은 예술단체에 힘이 되고자 한다.

기업의 ESG 경영에서 기업의 문화예술 투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 그림을 산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이용한 기업,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는 기업 등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은 ESG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를 법령화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주고 있는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 및 문화예술단체 여러분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남메세나는 지역 메세나 단체 최초로 문체부 인증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을 3회 연속 받는 등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많은 회원사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경남에 문화예술이 이만큼 뿌리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비전 2030에서 밝힌 것처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메세나 기업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도 차원에서도 회원사와 문화예술단체 간의 동행이 더욱 많은 참여로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Q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술의 힘은 다양성에 있고, 예술은 다름을 마주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재료가 섞여 조화로운 맛을 내는 샐러드처럼, 문화예술 정책을 잘 펼쳐서 진정한 경남의 맛을 가진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앞으로 문화예술이 풍부한 재미있는 경남, 문화예술로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가 함께하고, 다름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웃는 일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경남문화예술 비전 20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예술인들의 보금자리

(주)느티나무의사랑 정선희 대표

우리,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요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알록달록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이 보이나요? 남다른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이랍니다. 느티나무의사랑 카페 갤러리엔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림속 화려한 색채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가 이곳 느티나무의사랑 카페에 깃들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장애학생 실습에서 시작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록

(주)느티나무의사랑은 1996년 설립된 소비재 제조업 공장으로 판촉물, 답례품, 기념품을 생산하고 있다. 에코백, 장바구니, 담요, 여행용 세트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며 디자인, 인쇄, 포장 등 공정을 포함한다. 공장과 카페 등에 종사하는 직원 수는 70여 명, 비장애인 근로자가 50명 안팎이고 25명이 장애인 근로자다.

“2017년에 사업장을 부산에서 양산으로 옮겼어요. 그때 양산희망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을 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애인 실습생들에게 일을 시켜보니 비장애인보다 작업능률이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그 특성을 인정하고 장애인 실습생에게 어울리는 포지션을 찾아주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발달장애 실습생들이 집중력 좋고 단순 반복 작업은 곧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양산희망학교 학생들이 2~3년 실습을 했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여기 취직시켜 주면 안 되겠느냐 많이들 말씀하셔서 2명씩 취직을 했던 게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시초예요.”

당시만 해도 전 직원 수가 25명 미만이었기에 장애인 의무고용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한두 명씩 장애인 직원이 늘다 보니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제안했다. 장애인이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면 10명 이상이면 인증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한번에 고용하기엔 부담이 컸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 양산희망학교에 바리스타, 베이킹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번에 카페 사업으로 뛰어들었다. 공장을 카페 아래로 옮기고 공장 부지에 카페와 갤러리, 정원 등을 조성했다.

‘느티나무의 사랑 카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완공됐다. 서비스 직종이 수없이 스러져 갈 시점이었다. 다들 그의 사업을 걱정했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하게도 카페는 양산시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 2층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에 온 가족이 외식할 수 있는 경양식당, 아름다운 정원, 갤러리까지 더하니 문화불모지의 오아시스가 됐다.

일부 사람들은 카페로 수익을 내는 것 아니냐 반문하지만 오히려 전체 매출의 15% 가량 정도다. 제조 공장으로 수익을 내 카페와 갤러리 등 사업을 떠받치고 있다.



1년만에 발달장애 예술인 130명 고용

사업구조가 안정되자 정 대표는 발달장애 예술인 양성을 결심했다. 장애인 고용을 하다 보니 장애인 작가까지 생각이 미쳤다. 운영 중인 갤러리를 장애인 작가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해 보면 어떨까 하다 2022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ACEP2022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초대전’을 보고 무릎을 쳤다.

“변호사 우영우가 있다면 화가 우영우도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함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이 너무 뛰어나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갤러리에 장애인작가들 작품 전시만 할 게 아니라 소속 작가를 키워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처음엔 딱 10명만 급여를 주고 고용하려고 했어요. 2022년에 10명으로 출발했는데 2023년엔 130명이 됐네요(웃음)”

발달장애 작가들 사이에선 ‘꿈의 직장’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은 원색의 색감을 사용해 강렬해 보이는 특성이 있다. 대칭을 이루는 구조나 매우 섬세한 작업 역시 특징적이다.

“작품을 보면 수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작가 100명 중에 아주 뛰어난 작가가 5명이라면 다른 95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직업으로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림 그리는 걸 가르치고 자기만의 특징을 찾아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미술교육에 관심이 많은 보호자를 둔 장애인들은 저희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자기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작가라면 ‘어떤

소재를 찾았으면 좋겠다’, ‘어떤 기법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요. 그래야 작가로서 오래 가는 거예요.”

소속 작가들에겐 급여 외에 캔버스, 물감이 지원되며 이들은 매월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 매달 개최되는 전시회에선 출품한 작품은 판매까지 이어진다. 느티나무의사랑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머그컵, 에코백, 무릎담요 등의 굿즈를 제작해 카페 1층 굿즈샵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구독 서비스다. 관공서, 기업체, 단체, 시의회 등에 매달 작품을 교체하고 있다.

“구독 서비스는 전시공간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전시회를 한번 여는 데는 작가들도 움직여야 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구독료는 작품 가격의 5%입니다. 한 벽면 하나가 한 명의 작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림이 매분기 교체된다는 것은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에요. 느티나무의사랑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수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예요. 많은 장애인들이 느티나무의사랑에 고용 되기를 희망하세요. 꿈의 직장이 된 거죠.”

올모로 장애인 연계고용해 사회적 가치를 재창출

130명의 작가가 자유롭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에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올모(OLMO, Open Leap Master Overcome)’가 있다. 스페인어로 느티나무를 뜻하는 올모 아래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작가 보호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 세금 내게 해줘서 고맙다’세요. 지원 받는 입장에서 자립하는 국민이 된 것이니 의미가 있단 말씀이세요. 장애인공단에서는 장애인들에게 3개월 단기계약직이 아닌 평생 고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고 기업체에서는 직접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일정 부분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그 구심점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리노공업·sh수협은행·두나무와 공동 출자해 올해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해운대점 문을 연데 이어 올해엔 K뱅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저축은행, 한화그룹, 강동제약 등과 함께 경기도 일산점·부천점을 열었다. 느티나무의사랑은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

“저는 처음에 장애인을 고용할 때 조심스러웠어요. 제조업에 몸담은 30년 동안 한번도 고용하질 않았으니까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 첫해만 해도 25명을 고용할 수 있었잖아요. 저같은 소비재 업체라면 고용을 적극 권하고 싶어요. 장애인 직원들의 능력이 떨어질 순 있어요. 하지만 죽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해요. 변호사 우영우가 있다면 화가 우영우도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함께해 보는 건 어때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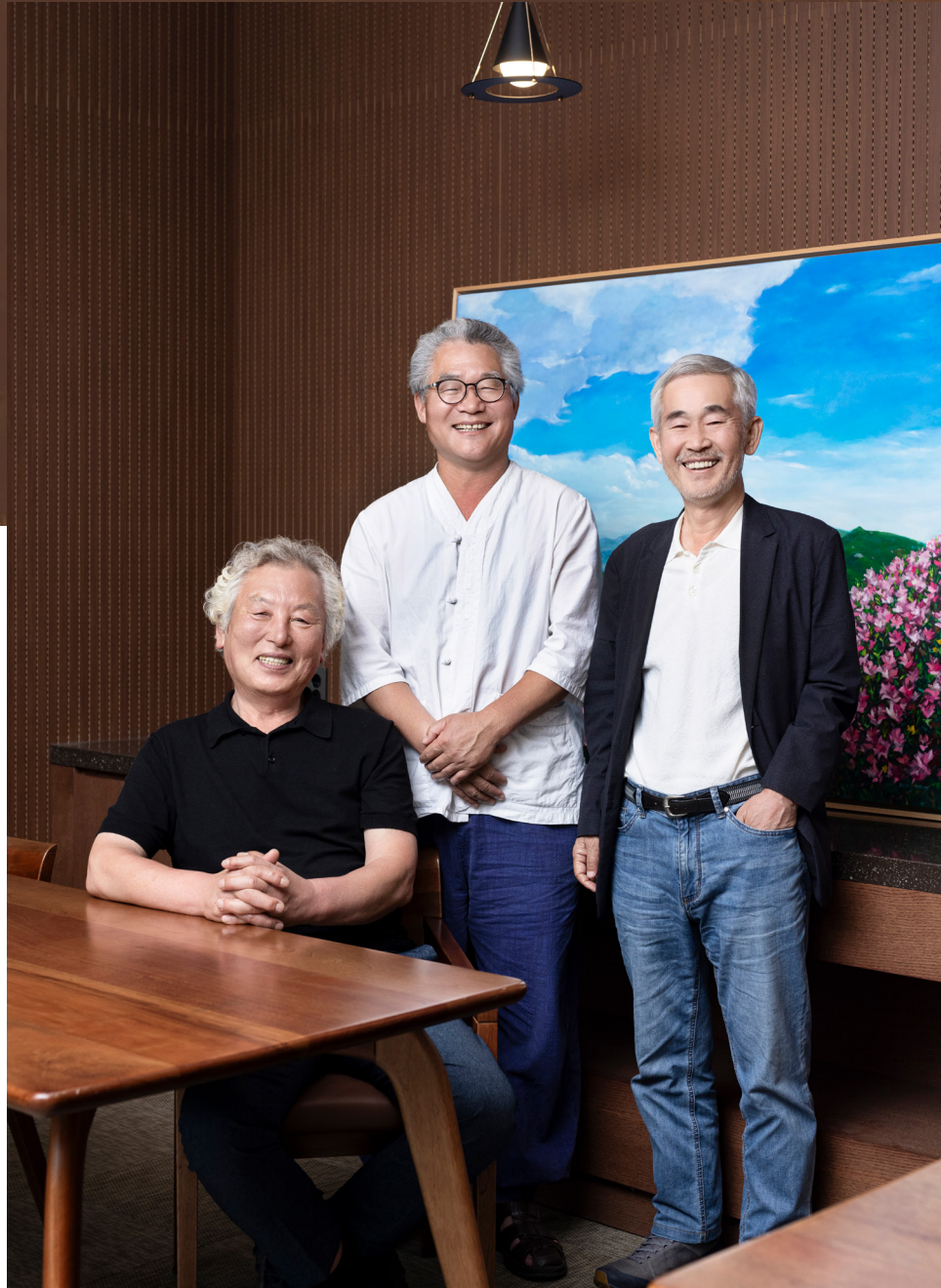
느티나무의 사랑 카페&홈페이지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송정로 270-2
www.huzcookr



01

인산가

코리아경남 심포니오케스트라



그늘 없이, 다 별이 드는
문화예술의 도시 함양을 위해

경남 문화예술의 소금이 되다

하늘 아래 신선이 사는 마을이 있다면 아마 이곳이 아닐까. 지리산 자락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인산가 웰니스 호텔에서 세 명의 신선을 만났다. 죽염으로 세상의 건강을 지키고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인산가 김윤세 회장과 함양 문화예술의 자금심인 전문예술법인 다별문화의 김현태 대표, 그리고 코리아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음악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전진석 예술단장이 그렇다. 세 사람이 모여 앉은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은 도인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들이 함께 손을 맞잡으니 문화예술 소외지역이라 불렸던 함양에도 이제 별이 들고 있다. 함양, 말 그대로 다 별이 드는 고장인 이곳은 문화예술도 그늘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쬐고 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인산가

(주)인산가는 1987년 세계 최초로 죽염 산업화에 성공하며 건강을 위한 죽염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김윤세 회장은 죽염의 효능을 세상에 알린 부친 '인산 김일훈'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죽염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자 인산가를 설립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죽염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죽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오늘날 인산가가 나누고 있는 것은 건강만이 아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해 내고 지역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해 죽염이 필요하듯, 마음의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김 회장은 처음 경남메세나협회가 설립될 때부터 힘을 보태며 경남의 문화예술 운동을 이끈 선구자 중 하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원사로 함께하며 경남에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지역 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업 행사에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기업과 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공로로 메세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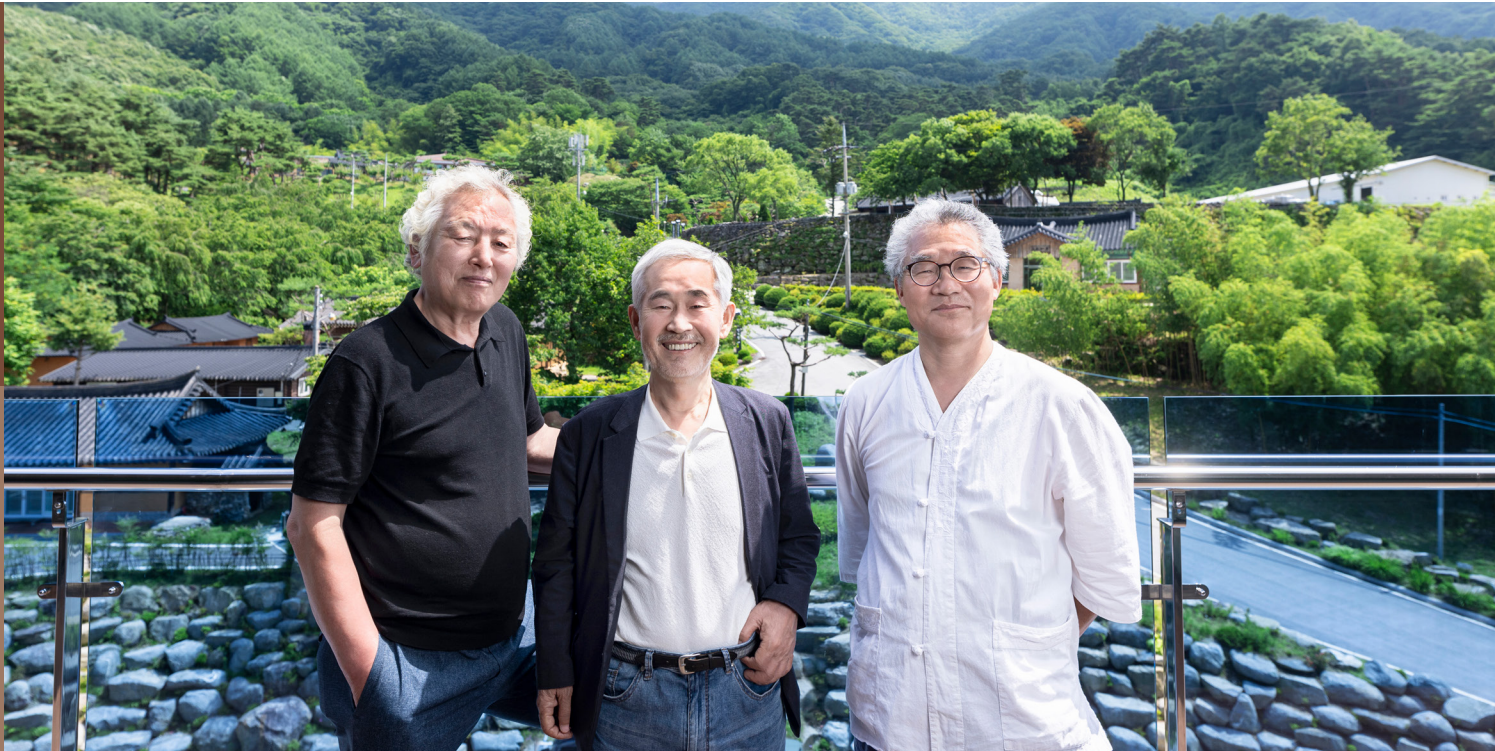
“인산가가 본업이 소금(죽염) 장수니까, 좀 짭짤하거든요. 짭짤한 기업이 이렇게 문화예술을 후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문화예술 단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별이 드는’ 함양에서 만나는 다별문화

함양을 한자로 풀어내면 다 함(咸), 별 양(陽), 다 별이 드는 고장이란 뜻이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리 별이 강해도 그림자 하나 없이 모든 곳에 골고루 별이 들어오고 있었다.

문화예술에도 다 별이 드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 전문예술법인 다별문화가 설립됐다. 학교에서 연극을 하고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다별문화 초대 회장은 전진석 단장으로, 학교를 퇴직한 후 지역을 위해 보탬이 될 것이 무엇인지 찾다가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인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좌측부터) 코리아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전진석 예술감독, (우)인산가 김윤세 회장, 다별문화 김현태 대표



다별문화는 현재 김현태 회장의 지휘 아래 총 3개의 분야로 나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산하에 다별유스오케스트라, 코리아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진주다별유스오케스트라, 다별빅밴드 등의 연주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지리산 음악제를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전진석 단장 “함양의 오케스트라 인프라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코리아경남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 오작교로 만난 두 단체

두 단체 모두 함양을 빛내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지만, 정작 두 단체의 인연은 십사리 이어지지 못했다. 다별문화는 경남 전역을 넘어 활약하고 있었고, 인산가는 당시 창원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두 단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고,

그때부터 뜻이 맞아 지금까지 5년 동안 결연을 이어오고 있다.

시너지는 바로 나타났다. 인산가에서 펼쳐지는 지리산 음악제는 벌써 8회째 지역을 넘어 경남을 대표하는 산중 음악제로 입소문이 났다. 지리산의 맑은 정기 아래 펼쳐지는 오케스트라 음악은 함양군민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공연 하나 제대로 올리기 힘들었던 예술단체에게 기업의 지원은, 이처럼 지역 전체를 들쭉거리게 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현태 대표 “사실 함양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기업이 있으니 다양한 행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함양을 넘어 경남을 대표하는 음악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함께 걸으니 좋지 아니한가

현재 인산가 옆 대규모 공간에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곳에 박물관과 도서관, 공연장 등을 건립해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까지 즐길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대규모



고용과 함께 함양을 대표하는 힐링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된 공연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음악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어서 함양군민 여러분께 멋진 공연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김 회장의 말에 전 단장의 얼굴에 돌연 화색이 돋았다. 인산가에서 꿈꾸는 새로운 공연장이 코리아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꿈꾸고 있는 미래의 청사진과 딱 들어맞은 것.

“정말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공연 시설이 준비된다면 다별문화에서 꿈꾸고 있는 알프스 지리산 음악제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지리산 음악제를 운영 중인데, 앞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알프스 지리산 음악제를 만들고 싶거든요. 인산가와 함께 꼭 그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또 음악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다

죽염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불에 녹이고

굳히는 작업을 3년간 아홉 번 반복해야 죽염 하나가 탄생한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림 한 장, 문장 하나, 소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만 번 되풀이했을 노력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죽염의 생산 과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김 회장은, 그래서 예술인들의 마음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메세나 운동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소금은 짜다. 그래서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할 때도 꽤 짭짤하게 지원한다. 덕분에 우리는 다 별이 드는 함양의 문화예술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나는 문화예술이, 이곳 함양을 터전으로 더 많이, 더 깊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세상은 짠 것을 거부하는 시대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금’을 귀하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인산가는 기업 활동으로, 코리아경남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음악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주고 있다. 인산가 웰니스 호텔에서 내어준 죽염 커피처럼, 달달하면서 짭짤한 그들의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02

경남스틸

경남재즈 오케스트라



경남스틸이 내려준 뿌리

모두가 즐기는 ‘음악’이란 열매

무려 30년의 세월이다. 처음 최충경 회장과 인연을 맺은 실버재즈오케스트라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을 함께 달려왔다. 이제 경남스틸은 최충경 회장에 이어 최석우 대표가 새롭게 경영을 맡고 있고, 실버재즈오케스트라는 경남재즈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해 오고 있지만, 두 단체 사이에 달라진 것은 없다. 경남스틸은 처음처럼 변함없이 마음껏 음악 할 수 있게 든든하게 응원해 주고, 경남재즈오케스트라는 좋은 음악을 무대에 올려 기쁨을 선사한다. 메세나란 이름 아래 함께하는 두 단체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음악이란 열매를 즐기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경남스틸과 경남재즈오케스트라가 매칭펀드 사업으로 손을 맞잡은 지 14년. 이것만으로 이미 대단한 역사지만, 두 단체의 인연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당시 경남스틸을 운영하던 최충경 회장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실버재즈오케스트라 후원을 시작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경남스틸은 경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실버재즈오케스트라는 경남재즈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꿔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함께 마주한 최석우 대표와 김정호 단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처음 열정 그대로, 뿌리 깊은 ‘경남재즈오케스트라’

경남재즈오케스트라는 내년이면 창단 30주년을 맞이하는 장수 오케스트라다. 처음 열정 그대로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뿌리 깊은 역사만큼이나 시민들에게 좋은 무대를 많이 선보여 왔다.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장수 멤버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연주 활동을 이어가는



2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단체인 만큼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진되어 있으며, 함께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남다른 것은 무대에 대한 열정이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멀리 통영과 남해, 부산 등 경남 전역에서 공연 준비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지만 함께 무대에 서는 감동의 순간을 잊을 수 없기에 오늘도 함께 모여 연습에 매진한다.

하지만 아무리 음악을 사랑해도 공연할 장소와 기회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경남재즈오케스트라가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든든한 뿌리가 되어준 곳이 바로 경남스틸이다. 김 단장은 경남재즈오케스트라의 뿌리 깊은 역사는 경남스틸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다고 말한다.

“경남스틸은 우리 오케스트라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최충경 회장님의 지원으로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렸고, 최 대표님의 연이은 지원으로 뿌리가 더 튼튼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의 감사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대를 잇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경남스틸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음악 단체를 후원해 오셨기 때문에 실버재즈 오케스트라 시절부터 구경도 많이 갔었어요. 어려서부터 공연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하모니를 듣고 자란 덕분에 최 대표 역시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즐기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기업을 경영하느라 틈을 꾸려 무대에 설 만큼 시간을 내지는 못해도, 성장 과정에서 함께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다. 그래서일까. 최충경 회장에 이어 최 대표까지, 경남스틸의 문화예술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대를 이어 대가 없는 나눔을 펼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경남스틸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눔을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비결은 바로 경영 방침 덕분이다. 창립 이후 ‘회사 이익의 10%는 사회를 위해서 쓴다’를 경영 방침으로 세우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눔 활동은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 장학 사업, 사회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곳에 골고루 지원하고 있다. 최근 ESG 경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스틸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저희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무대에 올라선 사람들도, 무대를 즐기는 관객들도 모두 음악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노력이 문화예술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나눔이 기쁨으로 되돌아온 경험이 정말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술과 일상이 함께하는 런치콘서트

지난 30년간 두 단체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 문화예술 지원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김 단장과 최 대표 역시 달라진 시대를 공감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고 있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경남재즈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함께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남스틸 사업장마다 돌아가면서 ‘런치콘서트’를 펼치는 건 어떨까요? 직원들도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늘어날 테니까요.”

“경남스틸에서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음악을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보답도 하고,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께 전하고 싶거든요. 어떤 음악을 신청하셔도 바로 연주할 수 있게 늘 준비되어 있으니, 런치콘서트 무대를 꼭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공연장에 찾아가지 않아도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잠깐 벤치에 앉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술과 일상이 함께하는 바로 이 놀라운 일이 곧 경남스틸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몇 번의 공연을 보고 수많은 곡을 들은 후 어느 날, 문득 색소폰이 궁금해지고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싶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메세나가 세상에 필요한 이유이자 기업들이 문화예술 단체를 후원하면서 더 많은 무대를 열어가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

경남스틸이 경남재즈오케스트라의 든든한 뿌리라면, 이제 그 열매를 모두에게 선보일 때다. 경남재즈오케스트라가 만들어갈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내년에 있을 30주년 기념 공연이다. 30주년을 맞이하는 공연인

만큼 두 단체의 인연을 만든 최충경 회장이 무대에 올라 기념 연주를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그동안 오케스트라를 거쳤던 모든 단원들이 함께 참석해 지난 시간을 갈무리하는 잔치를 펼친다.

“올해도 12월 8일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지만, 내년에 열린 30주년 기념 공연은 정말 뜻깊은 잔치가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최석우 대표님도 연주자로서 함께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김 단장의 초대에 최 대표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대답했다. 대를 이어 문화예술 지원을 펼치는 기업, 대를 이어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무대를 풍성하게 만드는 기업. 누군가에게 ‘뿌리’인 경남스틸은 그 열매까지도 함께 나누며 더 풍성한 경남 문화예술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남재즈오케스트라가 저희를 뿌리라고 여긴다면, 저희에게 경남재즈 오케스트라는 망원경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스트라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에게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많이 비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뿌리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지역의 문화예술 가치가 올라가면 기업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무학

최재호 회장

경남을 대표하는 100년 기업 무학은 그동안 우리 삶의 희로애락과 함께하며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산업 환경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진 지금까지 100년을 한결같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기업이 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무학 최재호 회장을 만났다. 최 회장은 올해부터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맡으며, 기업 경영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계를 아우르며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고객의 구두를 닦아드립니다

사람들은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술 한 잔을 나누며 순간의 감정을 주고받는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늘 정이 있었고 술이 있었다. 그래서 경남에서 국내 주류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해 온 100년 기업 무학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다.

슬프고 기쁜 순간마다 무학의 주류를 찾아주는 고객들이 감사해서, 최 회장은 한겨울 구두 가방을 메고 거리를 헤매며 구두닦이를 자처했다. 부산 서면이나 동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고객들의 구두를 직접 닦아준 것. 추운 날씨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두세 시간 동안 구두를 닦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고객들의 생각까지 읽을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이 우리 주류를 마셔준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방법으로 고객의 구두를 닦아주면서 마음을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무학의 2세 경영자로서, 누군가는 쉽게 올라섰을 거라 단정 짓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가 구두를 닦았다.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그에게서 진정한 기업가의 책임감이 느껴졌다.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가 진심을 갖고 대하는 것은 비단 기업 활동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창원 마산회원구 무학빌딩 입구에 가면 창원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의 조각 작품 ‘무학’을 만날 수 있다. 아직 문신 선생이 국내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시절, 프랑스에서 먼저 문신 선생의 업적을 전해 들은 최 회장은 창원으로 돌아와 문신 선생과 조우했다. 그때 선생의 작품을 꼭 하나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무학’이다.

“그때 문신 선생께서 직접 오셔서 작품 제막식에도 참석하셨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문신 선생을 마지막으로 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선생 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노산 이은상 선생이나 반야월 선생 등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많은데, 그분들의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제대로 따져서 훌륭한 업적들이 묻히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학은 고성오광대보존회와 결연을 맺고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굿데이 갤러리를 운영하며 지역 미술작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메세나협회에 이어 창원상공회의소까지, 진심이 닿다

무학은 경남메세나협회를 설명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고성오광대, 경남미술협회 등 여러 문화예술 단체와 매칭펀드를 통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고성오광대가 처음 만들어질 무렵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으며, 고성오광대의 순수한 열정을 지원하고자 변함없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제6대 경남메세나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경남에 메세나가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재임 당시 사설 단체였던 경남메세나협회를 문화관광부 지정 메세나 단체로 지정받게 했으며, 처음으로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이 100개 기업으로 확장하는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큰 성장을 이뤄냈다. 무엇보다 경남 18개 시군 지역별로 문화예술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는 메세나’ 정책을 펼쳐 경남 어느 지역에서나 다양한 문화예술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남 전역에서 더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올해부터는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맡으며 지역 경제인들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지역 문화예술인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원상공회의소 내 갤러리에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상공회의소 문화예술 담당 고문을 초빙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나겠지만, 간접적으로는 회원사들이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넓혀 나가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또 경남의 모든 상공회의소가 함께 지역별 문화예술 꿈나무를 키우는 데 앞장서 달라고 충언하고 있으니, 앞으로 경남 문화예술의 미래는 더 밝아질 거라 생각해요.”

문화예술이 있는 도시는 미래가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문화예술은 이윤 활동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데 말이다. 최 회장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기업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프랑스 파리라든지 그리스와 로마라든지 해외에 있는 유명한 지역이 가 보면, 과거의 영광으로 아직 먹고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이 있는 도시라야 미래가 있다는 뜻이지요.”

문화예술이 숨 쉬는 곳에서는 기업도 발전한다. 문화예술이 충분한 곳에서는 행복이 넘쳐나고 범죄도 줄어든다. 무학이 추구하는 기업 목표가 바로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단순히 주류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의 행복 전도사가 되기 위해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간다.

이를 위해 기꺼이 문화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무학 굿데이 뮤지엄을 개관했으며, 굿데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좋은데이 미술대전과 좋은데이 지역작가 초대전을 통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돕고, 매년 매칭펀드를 통해 여러 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또 故최위승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고성에 복합문화공간인 ‘고성문화예술촌’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마산에 무학 연수원을 지어 공연장과 갤러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

이집트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한다. 인생에서 행복을 찾았는가, 그리고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았는지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몇 되지 않을 것이다.

최 회장은 두 번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삶의 가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두고, 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 남은 인생은 문화예술이든 경제든 사회 공헌이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국내 주류 시장이 25도의 벽에 머물렀던 시절, 그는 단단한 벽을 깨고 부드러운 소주를 맨 처음 만들어냈다. 이후 다시 17도의 벽까지 허물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술을 즐기는 새로운 주류 문화를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무가당 소주를 만들어 건강 걱정까지 줄여주었다.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를 바꾸고, 주류 문화를 건전하게 만들었던 최 회장은 이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문화예술 지원과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좋은 본보기까지 되고 있으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66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돈만 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해요.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을 좇는 게 아닙니다.
이상과 꿈을 좇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비록 사는 게 힘들어도 꿈과 이상은 실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을 때 도심은 살아나고,
기업체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경남이 문화예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면,
경남에 있는 기업의 가치도 함께 상승하는 거죠.

99



국사무형유산 지정 60주년

조직혁신으로 만들어 갈 미래 100년

고성오광대보존회
황종욱 부회장

고성오광대가 국사무형유산 지정 60주년을 맞았다. 조선 후기부터 오늘날까지 파란만장했던 한국 근현대사를 겪으며 우리나라 대표 탈춤으로 자리매김한 고성오광대. 그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고성오광대에 대한 구성원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겠다. 고성오광대가 그리는 미래 100년은 어떤 모습일까. 황종욱 고성오광대보존회 부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화해와 조화를 말하는 ‘탈춤’

고성오광대는 경남의 탈놀이 ‘오광대’ 중 하나다. 오광대라는 말의 유래에는 다섯 마당(5과장)으로 놀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다섯 광대가 나와서 놀기에 이름 붙여졌다는 설도 있다.

탈춤은 사회의 여러 부조리한 대상과 이슈를 다루며 종교인의 관념적 허위와 이중성, 상류 계급의 오만함과 무지, 가부장 사회의 모순과 서민 생활의 애환 등을 춤, 노래, 대사를 통해 유쾌하게 표현해 내는 종합예술이다. 한국의 탈춤에서는 적대적인 인물들 간의 갈등이 항상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된다.

고성오광대 역시 마찬가지다. 양반과장, 중과장, 영감할미과장 등 모든 과장에서 적대적인 관계의 등장인물들은 언제나 화해의 춤을 추고 끝난다.

“이 탈춤이 형성될 시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문제시하는, 이른바 ‘궁공의 적’들을 유쾌하고 신명나게 예술로 공론화한 거죠. 이걸 문화적 민주주의의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탈춤은 ‘갈등’을 목적으로 한 예술이 아니라 ‘화해’와 ‘조화’를 위한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구요.”

오광대 원형에 가장 가까운 ‘고성오광대’

고성오광대는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기사를 찾을 수 있을만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탈놀이다. 구한말 이윤희, 정화경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 놀다가 김창후, 홍성락, 천세봉에게 전수했다고 전한다. 그러다 일제강점기가 되고 일제의 수탈이 극심해져 고성오광대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으나 해방 직후 세 명인이 발빠르게 오광대 모임을 조직해 오늘날에 이른다.

규합한 모임은 1946년 당시 가야극장 개관 기념 공연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 해방 후 다른 지역의 탈놀이가 1950년대 후반에 복원된 것에 비하면 고성오광대의 행보는 기적적이다. 이들 선배



“고성오광대에 대한 자긍심은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경영도 민주적으로, 공연도 민주적으로 해왔습니다.”

예인들의 선구적 판단으로 고성오광대는 영남권 탈춤의 원형을 가장 가깝게 간직하고 있던 평가를 받고 있다.

첫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어른들에게 전승되던 고성오광대는 1964년 국가무형유산 지정, 1969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뒤 점차 전문예술단체로 입지를 굳혀갔다.

“1964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근거를 갖고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시작했습니다. 1호가 종묘 제례악, 2호가 양주별산대놀이, 고성오광대는 7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성오광대는 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남산 자락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경로당에 있었고요. 그러다 1973년도에 학생들이 민속 공부를 배우고 싶다면서 내려와 전수관을 만들었죠. 1987년 동외리에 전수관을 처음 설립했고, 지금의 전수관은 2012년도에 지었습니다.”

탈놀이배움터는 전문예인 양성의 요람

전수관까지 갖춘 고성오광대보존회는 거리낄 게 없었다. 1973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 전력은 197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탈놀이배움터였다. 학생, 직장인, 외국인 등에게 고성오광대를 알리고 전수했다. 황 부회장도 그때를 계기로 고성오광대를 알게 됐다.



“고등학교 다닐 때 고성오광대가 공연을 온 거예요. 그때는 연예인, 지금의 BTS처럼 느껴졌죠. 그때는 뭐 볼 게 없었잖아요. 저처럼 오는 사람도 있고 시대가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민중화 운동 차원에서 접근했었고 지역 문화니 보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고. 지금은 직업으로서 전문예술인으로 종사하고 있죠.”

예술과 경영 분리 시도로 새로운 동력 마련

황 부회장이 4세대라면 최민서 사무국장은 5세대 예술인이다. 그 역시 고성오광대를 배우러 왔다가 고성오광대에 등지를 틀었다. 5세대 예술인들 90% 이상이 타 지역 출신이다. 서울, 강원, 경기, 전라 등등 청년들이 연고도 없는 고성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예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황 부회장의 예술·경영 분리 시도가 주효했다.

“2012년 새로운 전수관을 짓고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간사하고 저 하고 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으니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라, 상근직을 채용하고 임금을 줘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단체가 계속해서 우수한 공연을 만들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고성오광대는 예술 경영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회원 복지를 증진시키고 회원들의 충성도를 높여 활동성을 보장해줍니다. 왕성한 활동은 새로운 사업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성오광대의 원칙은 곧 자긍심

고성오광대가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다. 전승자 35명을 넘기지 않을 것. 현재 고성오광대 규모에서 전승자를 충원한다는 것은 운영비 문제 차원이 아니다.

“배역 경쟁이 매너리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체가 연장자를 중심으로 공연을 하다 보면 배역이 고착화돼 발전이 없게 됩니다. 고성오광대는 1인 2배역까지 합니다.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남의 연기를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상호존중이다. 고성오광대에서는 전승자들의 회갑연, 칠순잔치를 연다. 대학에 가든 가지 않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고성오광대에 대한 자긍심은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배려하고요. 상호 존중과 존경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토론과 논의는 평등하게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해요. 경영도 민주적으로, 공연도 민주적으로 해왔습니다.”



8/15~17 고성 일원서 60주년 기념공연 개최

고성오광대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을 맞아 그들만의 멋과 자긍심을 살린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축제를 엽니다. 지금까지의 6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자는 의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축제의 새로운 축제 모델로 부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탈놀이배움터에서 고성오광대를 배워갔던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학생들 수백 명과 장사익, 김덕수 선생을 모시고 2박 3일 춤판을 벌여보겠습니다. 원양반과 말뚝이들이 춤을 추고 그 아래에 또 탈을 쓴 춤꾼들이 탈춤을 추고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고성오광대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누구나 양질의 예술 콘텐츠를 누리는 즐거운 공간”

경남도립미술관
박금숙 관장

경남은 이준, 이성자, 김종영 등 불세출의 거장들을 배출해낸 문화예술의 땅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경남에도 미래의 거장이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즐거운 미술관, 소통하는 미술관이란 패러다임이 자리 잡았다.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 오늘날의 가치와 미래에 전해질 유산까지 엮고 돈은 20년이었다. 개관 20주년을 맞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박금숙 관장을 만나 미술관의 내일을 살짝 엿보고 왔다.

Q1. 경남도립미술관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개관 당시의 역할과 오늘날의 역할은 같으면서 또 다른 부분이 있겠다.

당시 경남도립미술관은 ‘도’ 단위 최초의 미술관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설립취지를 살펴보면 경남을 대표하는 공립미술관이라는 상징성과 ‘경남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경남의 문화 발전’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유효하면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난 2024년은 지역사회와 미술관이 예술을 매개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기존 미술관의 고유 업무인 소장품 수집, 연구, 전시, 교육은 더욱 깊이 있게 추진하면서, 미술관이 접촉할 수 있는 고객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과거 미술관이 연구 중심의 무거운 느낌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미술관은 양질의 예술 콘텐츠를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는 즐거운 장소로 변모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Q2. 취임 당시 경남미술사 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전시는 무엇이 있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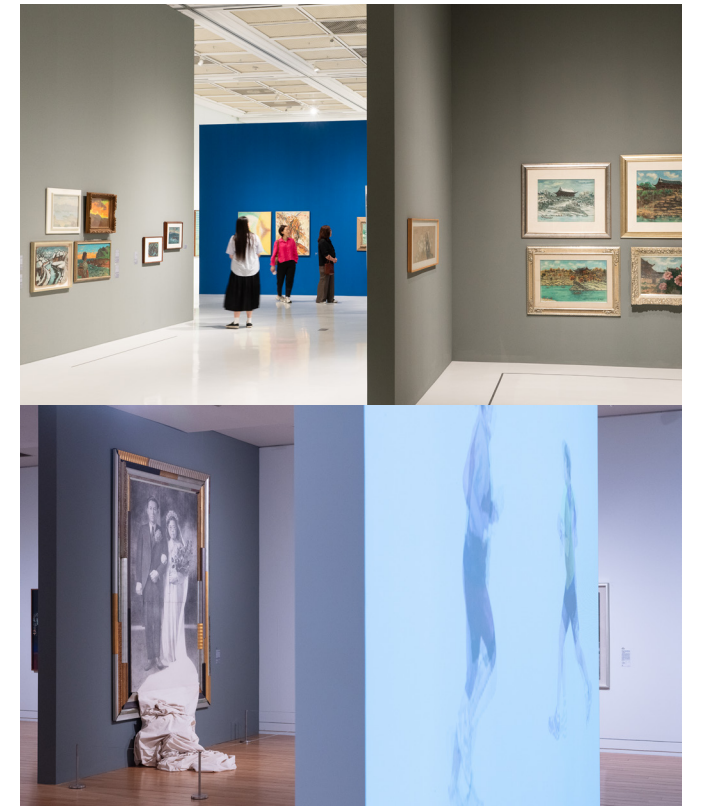
경남미술사 정립은 도립미술관이 2004년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작업이다. 박생광, 정상화, 하종현, 하인두, 전혁립, 이준, 이성자, 김종영, 양달석, 변상봉, 박덕규, 김영원, 윤병석, 심문섭, 백순공 등 대규모 개인전을 꾸준히 개최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 20년 동안 미술관이 어떤 전시를 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아카이브형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미술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 학술세미나 ‘동시대 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현황과 과제’는 이런 전시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세미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 《GAM 컬렉션: 미래의 기억》과 연계한 소장품 정책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의 역사를 돌아보고, 타 지역미술관의 사례를 살펴보는 세미나다. 더불어서 유택렬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작업세계는 물론이고 그가 운영했던 진해 흑백다방의 역사를 같이 다룰 예정이다.

Q3. 지역 작가 발굴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 준비 중인 사업이 있나.

조명받지 못했던 작고작가 발굴이나 신진작가 발굴, 그리고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원로나 중견 작가를 찾아 집중 조명하는 것은 경남도립미술관이 해야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가깝게故 백순공 작가나 박봉기 작가를 집중 조명한 전시나 경남 청년작가 중심인 N아티스트 전시의 경우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올해 초 개최했던 《지금 경남 미술 산 섬 들》의 경우도 지역의 뛰어난 작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유택렬과 흑백다방 친구들》(가제) 역시 이러한 지역작가 발굴의 일환이다. 단순히 작가 1인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살아왔던 시대를 다루면서 자연스레 지역 미술의 사회사를 다룰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진행 중인 사업이라 조심스럽지만 경상남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세계 곳곳의 도시의 미술관과 연계해 경남 작가를 해외에 소개하는 작업도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우리 도와 자매도시인 폴란드의 포모르스키에주의 스웁스크발틱현대미술관과 작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Q4.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나.

6월말 20주년을 기념해 미술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다채로운 미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미술주간 <갯감회소식>을 운영했다.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는데, 전시 4건, 교육프로그램 4종 6회, 전시해설 2종 40회, 문화행사 3종 4회, 이벤트 4종 5회 등 9일 동안 총 55회의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주말에는 ‘갯감 아트 빌리지’라는 일종의 아트마켓을 미술관 실내에서 개최해 이틀 동안 1,7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6월 29일에는 ‘갯감 스크리닝’을 통해 국내 미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씨, 예술을 보러가다>(2022)를 상영했고, 30일에는 경남에서 활동하는 경남 청년 밴드인 ‘을옷과 ‘엇글밥’을 초청해 ‘갯감회 콘서트’를 개최했다.

전시와 연계해서는 6월 25일부터 ‘모두를 위한 도슨트’를 진행해 진역 내 청각장애인들의 전시관람을 도왔다. 호응이 좋아 ‘모두를 위한 도슨트’는 앞으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6월 26일에는 <동시대 지역 공립미술관 전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으며, 29일에는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직접 전시를 소개하는 ‘큐레이터 토크’를 열어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Q5. 공공미술관으로서 경남도립미술관의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남도립미술관은 그 이름에서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도립+미술관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지역적으로 경상남도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도립이기에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창의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는 미술관에서의 공공적 실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술관의 접근가능성, 공익성, 개방성, 다양성(포용성), 참여적 민주성, 비영리성 등을 얼마나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미술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남도립미술관 역시 이러한 방향에 동참해 열린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려고 한다.

지난 20년이 경남도립미술관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체성을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이러한 바탕 아래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동하여 '모두의 미술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작품 하나하나의 한 시대의 흐름과 당대 삶의 흔적이 새겨진 문화유산으로서 후대에 전해질 '타임캡슐'과 같다. 소장품은 그 가운데 미술관이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수집하는 것으로 수집과 연구는 곧 그 미술관의 정체성과 특성을 나타낸다.

경남도립미술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고정된 유형의 자산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대의 정교한 조각'으로서 소장품 기획전 《GAM 컬렉션: 미래의 기억》을 열었다. 소장품 1,439점을 분류, 분석해 7개의 섹션으로 나누고 그간의 현황과 주요 작가 및 작품을 중심으로 지난 100년간 한국과 경남미술의 큰 흐름을 일러주는 내용이다.

섹션1 근대기 미술과 서양화 도입

20세기 전통 서화부터 서양화 도입을 이끈 선구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당시 경남은 개항으로 많은 일본인이 정착해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일본인 도화교사와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서양화 역사가 시작됐다. 박생광, 김용주, 김종영, 임호, 이립, 이준, 이상갑, 문신, 이수홍 등의 작가가 있다. 한국전쟁 때 피난 온 중앙화단의 화가들과 교류하며 경남미술사에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섹션2 새로운 미술 실험 : 추상의 전개

끔찍한 세계 전쟁을 겪고 1950년대 중반부터 유행한 유럽 '앵포르멜', 미국 '추상표현주의' 등 의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추상양식을 불러왔다. 이 시기의 추상 작품을 탐구하고 1970년대 아방가르드 실험을 선도한 결과 전혁립, 유택렬, 하인두, 이준, 이성자, 정상화, 강국진 등 추상미술의 대가가 탄생했다. 특히 조각 장르에서는 김종영, 문신, 박종배, 심문섭, 박석원, 김영원 등 세기의 거장을 꼽을 수 있다.

섹션3 한국 미술의 정체성 모색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 속에 인간불균형과 인간소외 등 문제를 낳았다. 1980년대 신군부 정권에 이르러서는 민주화 운동이 격정적으로 일어나 대립과 충돌의 상흔이 깊었다. 화단 역시 서양 모더니즘을 급하게 이식한 데 대한 반동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를 되찾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는 단색화와 민중미술이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됐는데 단색화에선 색채의 사용은 극히 절제하면서도 '여백의 미, 자연관 등 동양의 요소를 접목했다면 민중미술에서는 민중의 삶을 그대로 녹여내 서사성을 되찾았다. 전자의 대표적 작가로는 이우환, 후자는 안창홍이 해당한다.

섹션4 한국적인 특색과 한국화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88서울올림픽'은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1980년대 새롭게 생겨난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동양화가 아닌 한국화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자부심, 한국화 화가들의 창작열은 높아져만 갔다. 서양화가 주류를 이루는 화단에서 박생광, 전혁립, 이성자, 하인두, 서세옥, 변상봉, 송수남, 남관, 이철주 등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특색과 색채를 사용해 명작을 남겼다.

섹션5 동시대 미술의 다변화

해외여행 전면 허용과 대중문화의 급격한 확산은 국가나 민족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일상의 이야기, 주위의 사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 도입과도 맞물려 미술계 역시 모더니즘 미술의 단일성과 순수성을 벗어나 중심보다 주변, 타자의 삶과 개별성, 개인적 서술을 중요시하게 됐다. 그간 중심 역사에서 배제됐던 개별적, 다층적 시선의 동시대 작품을 소개한다.

섹션6 뉴미디어의 출현 : 미디어아트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컬러TV와 캠코더 및 비디오 플레이어가

미술관 개관 20주년 소장품 기획전 《GAM 컬렉션: 미래의 기억》

시대의 정교한 조각”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무선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영상문화 및 정보통신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물결은 미술 영역에도 사진, TV, 컴퓨터 등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킨 예술을 태동시켰다. 1960년대 백남준이 세계 최초로 비디오아트를 창시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확장돼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섹션 6'에서는 이 시대 빼놓을 수 없는 미디어아트 부문 작품을 소개한다.

섹션7 GAM 컬렉션의 수집과 활용 현황

2004년 개관 이전부터 현재까지 총 1,439점을 수집, 보존하고 있기까지 소장품 수집 정책 방향과 각종 현황, 활용에 관한 데이터를 도식화해 공개한다. 부문별로는 회화가 567점(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화 22%(316점), 한국화 9.24%(133점) 순이다. 이외에 사진, 서예, 조소, 드로잉, 공예, 뉴미디어 작품 등이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 작가가 341명으로 65.4%를 차지하고 서울 35명(6.71%), 부산 32명(6.15%) 비중을 차지한다.





Find Your Own Art!

2024 경남국제아트페어



경남국제아트페어(GIAF)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대가의 작품부터 패기 넘치는 신인의 실험적인 작품까지, 지역을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작품까지. 그 어떤 전시회보다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였다. 작가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재능의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 관람객은 오직 자신에게만 특별한 말을 걸어오는 작품과 조우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Find Your Own Art! 지난 7월 4일(목)부터 7월 7일(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2, 3전시장에서 펼쳐진 예술의 향연 속에서 운명의 작품들을 만나보자.

공들인 결과물에 대해 제대로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예술 시장은 더더구나 전무하다.

지역의 예술 감수성과 수준을 높이려면 지역에서 작가들이 ‘예술’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 그래서 경남국제아트페어의 부활은 더 반갑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경남 18개 시군에 자리한 지역 갤러리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갤러리, 그리고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의 갤러리까지 총 4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작품 수만 1,500여점이 넘는다.

특별전1 ‘흑백다방’ 유태렬 화백 조명

전시장에 들어서자 조금씩 걸음이 느려진다. 전시장 중심부에 자리한 커다란 길게. 반가운 얼굴, 보고 싶었던 작품이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춘다. 2024 경남국제아트페어(GIAF)에선 3개의 특별전이 펼쳐졌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인 유태렬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 <부적에서>였다. 유태렬 화백은 우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오래 사랑받고 있는 진해 흑백다방을 연 장본인. 그 시절 많은 예술가들의 소통의 장이었고 지역 작가들의 소중한 아지트였다. 지금은 또 다른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유태렬 미술관도 마련돼 있다. 전시된 유태렬 선생의 ‘부적 시리즈’, 떡과 한지, 아교로 한국의 전통 문양과 원형의식을 표현했다. 흑과 백, 그리고 붉거나 푸른 선들의 뒤엉킴... 문득, 지금보다 더 몸도 마음도 가난했던 시절에 선생은 과연... 어떤 바람을 담아 이런 부적을 썼을까 궁금해진다. 돌아돌아 다시 <부적에서>와 마주하니 수많은 지역 작가들이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쩍 간절해진다.

특별전2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두 번째 특별전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은 유독 북적이다. 발걸음을 먼저 잡는 건 독창적인 조형미와 균형감각을 보여주는 흑단의 조각품, 문신이다. 뿐만 아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화가 이림, 안재덕, 이두옥의 작품들, 김병중 김창열, 백순실, 이두식 같은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이름이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한다.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의 작품들은 모두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인 (주)한국아나세 우영준 회장의 소장품이다. 지역의 작가와 예술품에 평소 깊은 애정을 보여온 기업인답게 경남국제아트페어의 부활과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우영준 회장이 운영하는 정광갤러리에는 우리 지역의 중년 작가 박두리 선생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반겼다.

평소 지역의 예술가들과 기업 사이에서 조화로운 가교역할을 해왔던 경남메세나협회는 이번 아트페어를 주관한 경남관광재단과 MOU 협약을 맺으면서 행사 홍보를 비롯한 여러 부분을 함께 했다. 평소 메세나와 인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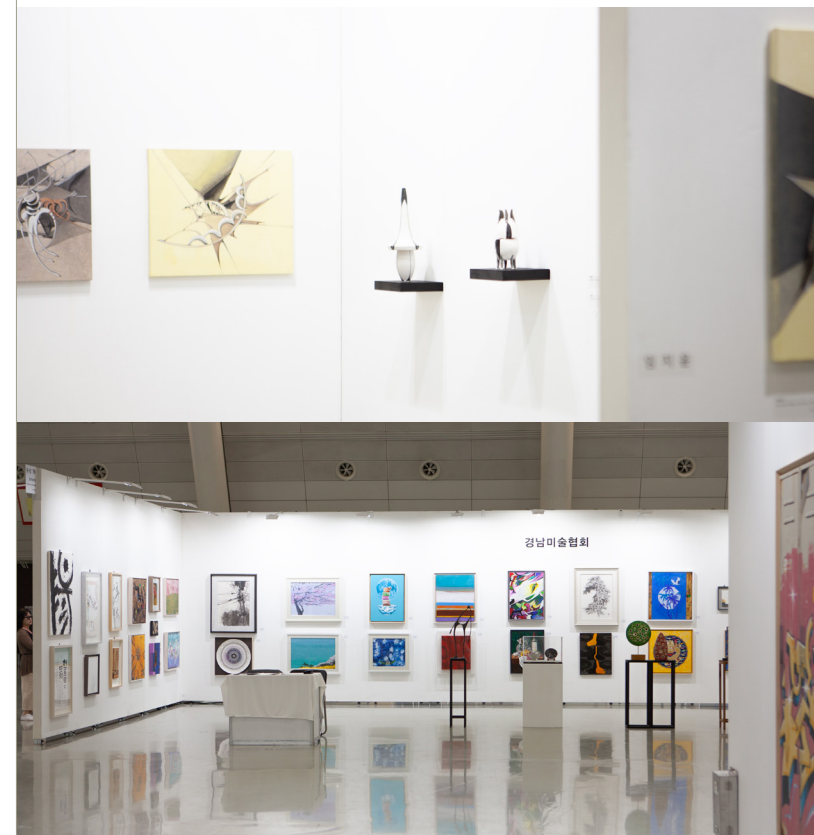
맺었던 경남의 여러 갤러리들도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자랑하고 나섰다. 실력 있는 작가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으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지원해온 경남메세나의 그간의 노력이 아트페어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난다. 어쩌면 지역 작가들과 기업이 사이를 연결하며 서로에게 시너지를 전해주는 메세나 활동은 가장 ‘Fair한(공정하고 타당한)’ 활동 아닐까?

문득, 멈춰선 자리에... ART!

알려진 것처럼 세계적인 경영자들은 이미 ‘예술’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사업 파트너와의 Small Talk의 주제로 아주 적합할 뿐만이 아니라 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리더로서 예술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마음 속 깊은 곳, 그 무언가를 건드리며 위로와 안식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비명, 물명, 불명이 유행하듯, 나만의 심금을 울리는 나만의 예술작품 앞에서 ‘그림 명’, ‘아트 명’에 빠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멈춰선 자리에서 나만의 작가, 나만의 작품, 나만의 Art를 발견한 즐거운 시간에 감사하며 경남국제아트페어가 지역의 훌륭한 예술 시장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6개국 43개 갤러리 1,500여점

2019년에 열렸던 열 번째 경남국제아트페어 이후 5년 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야말로 암울했던 지역 미술계가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이미 정평이 난 일부 대가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예술가는 시간과 재능을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윤동주 「나무」

© 대산면 우영우 팽나무

Photo by 김관수



김관수 KIM GOUANSU

· IPA갤러리 대표
· 경남사진학술연구원 원장
· 경남국제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장
· 경남예술인협회 회장
· 동서미술상 운영위원

이야기를 담은 공간, 문화를 담은 카페

“커피가 아니라 공간을 팝니다.”

브라운헨즈 라키비움 남해

남해 창선면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남해군에서 아침차게 건설했지만 오랫동안 쓸모를 찾지 못했던 이곳이 '브라운헨즈'를 만나 남해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빛나는 남해의 보석을 가득 지닌 이곳은 공간에 이야기를 담고 문화예술을 가득 담아, 찾아오는 이들에게 커피 향보다 더 진한 감동의 향기를 전한다. 그래서 이곳은 커피숍이지만, 커피가 아니라 공간을 판다.

남해를 여러 번 방문하는데도 찾아가는 길이 생겼다. 어느 관광지와는 다른 풍경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감탄하면서 조금 더 달렸다. 그 풍경의 끝에서,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브라운헨즈 라키비움 남해'를 만났다.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을 뿐인데, 오는 길이 이미 여행이었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진짜 여행이 시작됐다.

따뜻함을 지닌 가구, 브라운헨즈

브라운헨즈 라키비움 남해. 이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간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모두 헤아릴 수 있다. 그중에서도 먼저 브라운헨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브라운헨즈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다. 흙으로 만든 틀을 활용해 가구를 만드는데, 쓰임이 다한 흙 틀은 다시 부식 자연으로 돌아가게 한다. 브라운헨즈는 '흙을 만지는 손을 의미하며, 흙이 가진 거친 질감과 한국 전통 아치형 디자인,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가족을 활용하는 등 따뜻함을 지닌 브랜드다.

박진우 대표는 가구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쇼룸을 구상하던 중, 공간이 쓰임을 다해 폐건물이 되는 것을 보고 이를 활용해 보기로 했다. 커피와 가구 전시장을 겸한, 게다가 문화예술까지 즐길 수 있는 '브라운헨즈 카페'로 변신을 시도한 것. 그렇게 서울 도곡동에 처음 설립된 브라운헨즈는 전국 각지로 뻗어나갔고, 마침내 지난 2023년 1월 남해 창선면에 '브라운헨즈 라키비움 남해'가 문을 열었다.

남해안의 숨은 보석, 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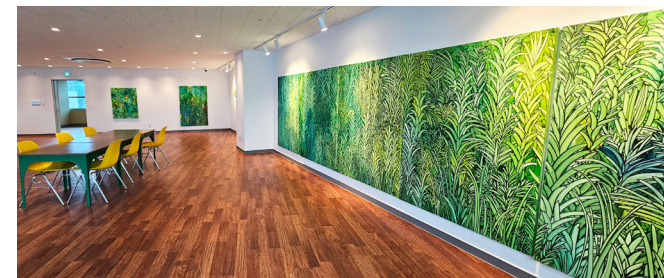
이곳은 남해군이 힐링빌리지 조성을 위해 건설한 공간이었지만 활용하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다. 박 대표가 처음 카페를 제안받고 방문해 보니, 이곳에서도 남해의 매력이 모두 느껴졌다. 잘 알려진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낯선 길을 따라 찾아오면서 남해의 진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언덕 위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말이 되면 남해 인근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인기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탁 트인 공간에서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 이미 '힐링'을 경험할 수 있고, 음악과 그림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처음 이곳에 와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부에 들어오니 바다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남해 바다를 즐기고, 내부에서는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조성할 당시 진주 MBC가 문을 닫게 되면서 방송국에서 소장하고 있던 LP 약 2만 장이 갈 곳을 잃었다. 박 대표는 소중한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LP 자료를 이곳으로 옮겨와 아늑한 복고풍의 LP 박물관으로 조성했다. 방송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정식 LP 중에는 희귀 자료뿐



아니라 방송 금지곡으로 선정된 LP도 있어서 찾아보는 재미가 무척 쏠쏠하다. 누군가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자,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는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준다.

문화예술 공간의 역할도 독특히 하고 있다. 특히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LP 음악여행'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신청곡을 받아 DJ가 직접 LP 음악을 틀어주면서 옛 음악다방의 모습을 재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또 남해군에서 실시한 '2023 보물섬 릴레이 버스킹'도 펼쳐졌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3인조 어쿠스틱 밴드 '아이씨밴드'와 2023 마지막 콘서트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음악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찾아온 사람도 음악이 주는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을 뜻한다. 브라운헨즈 라키비움 남해는 1층에서는 LP 박물관을 만나고, 2층 갤러리에서는 작품을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으며, 3층에 올라가면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때때로 공연도 펼쳐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라키비움'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 아닐까.

"브라운헨즈 라키비움 남해는 음악과 바다가 있는 디자인 카페입니다. 저희들의 손때가 많이 묻은 공간이에요.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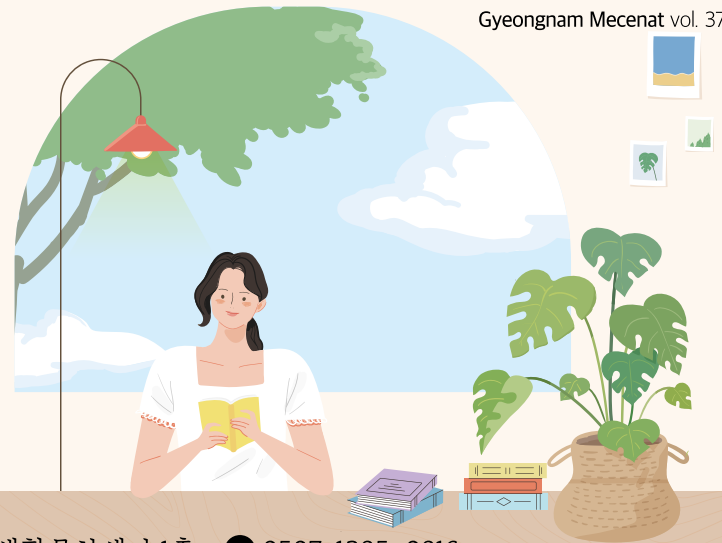
브라운헨즈 라키비움 남해

☎ 055-867-4608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437-33
힐링빌리지 브라운헨즈 라키비움 남해

동네책방으로 북캉스 떠나요

어디든 봄비는 휴가철, 시원한 책방에서 책도 읽고 체험도 하고 즐거운 피서 보내볼까. 지금 소개할 책방 두 곳은 지역민들이 사랑하는 동네책방이다. 지역 특색을 톡톡히 담아 여행하는 맛도 제법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올여름 휴가철 피서지로 강력 추천한다.



청학서점 ④ 밀양시 미리별중앙로1길 5-1 ☎ 0507-1339-2495

하동책방 ④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76 악양생활문화센터 1층 ☎ 0507-1385-0816

클래식 공연이 있는 책방

밀양시내 삼문동 어느 책방엔 예술가들이 모여든다. 클래식 연주자들은 건반을 두드리고 현을 켜며 화가들은 그림을 걸고 또 함께 그린다. 1961년 문을 연 청학서점은 본래 구도심에 있었다. 유동인구도 점점 줄고 인프라도 부족해 고민 끝에 지난 2019년 현재의 자리로 이사했다. 동네책방으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공연, 전시, 독서모임 등을 운영하게 됐으나 지금은 지역민들이 앞장서서 갖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대관료가 무료다 보니 새로운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미술학원 입학생들의 그림 전시, 시낭송대회 등 일상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사랑방'이다. 언제 찾아가도 책방은 늘 전시 중이다.



2층 규모의 책방 문을 열면 곧바로 서가와 유아동용 완구제품, 카페가 눈에 들어온다. 커피를 주문하고 책장을 훑어보자. 요즘 유행이라는 북큐레이션은 따로 없지만 동네 주민들이 좋아할 법한 책을 엄선해 갖다 뒀으니 서점 전체가 삼문동 큐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2층은 앉아서 책을 보고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 석이다. 높은 서가를 배경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랜드피아노다. 클래식 애호가인 부부가 좋아서 하다 보니 어느새 클래식 공연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올해만 해도 피아니스트 김도현·박재홍, 트럼펫 연주자 신호연, 성악가 함석현 등이 다녀갔다.

더 많은 소식은 인스타그램 '청학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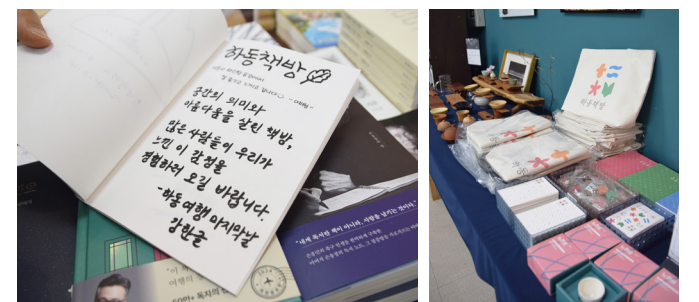
휴가지에서 만난 책방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대와 가까운 축지리에 위치한 책방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한 악양생활문화센터 1층에 지난 2024년 문을 열었다. 진주문고 여태훈 대표와 그의 오랜 지기 강성호 대표의 합작이다.

책방은 아담해보이지만 교실 세 개를 더 안쪽으로 공간이 깊은 형태다. 입구 현관부터 차례로 <하동과 로컬, 하동책방 우체통 방>, <독립서점의 특색을 살린 큐레이션 방>, <서관런도서, 선물책 + 누군가 먼저 읽은 책(중고책) 방>, <책다방(중고책+하동차 한 잔)> 순으로 연결돼 있다. 책방 밖에 넓은 강의실이 있고 이곳에서 대중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실을 비롯해 하동책방엔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개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박남준 시인, 공지영 작가가 다녀갔다.

창밖으로는 너른 잔디 운동장이 초록을 뽐내며 그 뒤로는 백운산과 구름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휴가지로 이름난 하동답게 그림 같은 정경이다. 서가에서 책을 골라 창가 테이블에 앉아도 좋고 책다방 고재 테이블에 앉아도 좋다. 읽고 싶은 책을 고르기 힘들다면 북큐레이션 서가로 향하고, 하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현관의 하동 관련 서가로 가면 된다. 고담한 책방지기과 담소를 나누는 것도 재미다. 책방을 찾은 손님들과 나누는 정담, 하동 사람들이 풀어낸 옛 이야기 등등. 사람책이라 하던가, 방명록엔 이미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잘 머물다 가노라 두꺼운 족적을 남겼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하동책방'을 검색하면 된다.



Mecenat News

2024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이사회·정기총회 개최

경남메세나협회 2024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목) 호텔인터내셔널에서 개최되었다.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협회의 비전을 힘차게 써내려간 김소영 작가의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사업 결과를 되돌아보고 올해의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기업과 예술 201개 팀 결연

협회는 2023년 사업 보고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201개 팀 결연이라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정기탁 후원을 포함하여 약 38억여 원이 도내 예술단체에 지원되어 경남 문화예술 생태계를 한층 공고히 했다. 이로써 협회는 기업과 예술단체 누적 결연 총 1,900개 팀, 누적 지원금 35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 메세나 단체로서는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회 연속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았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도모

경남메세나협회는 2024년도에도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 지역문화특화사업,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 예술의 가치를 도내

곳곳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에는 기업과 예술단체 190개 팀 이상 결연 달성을 목표로 세웠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예경탁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문화예술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여 ‘문화예술이 행복한 일상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경남의 메세나 활동을 선도할 임원 재구성

이날 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협회 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 (주)씨티알 강상우 부회장, (주)한국야나세 우영준 회장, BNK경남은행 임재문 상무, 범한산업(주) 정영식 회장, (주)무학 최낙준 총괄사장이 부회장으로 재선임되었으며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조청래 본부장이 부회장으로 교체 선임되었다. 이사에는 고성오광대보존회 이윤석 이사장이 연임되었으며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이정곤 국장이 교체 선임되었고 청호산업(유) 이동기 회장이 감사로서 협회의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아울러 (주)다우링에너지 이종호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신규 선임되었다. 이로써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1명, 감사 2명, 이사 12명, 고문 4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Mecenat News

2024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시행

올해도 180개 중소기업과 164개 예술단체가 만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다.

기업과 예술단체가 창조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되는 <2024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메세나 펀드지원금을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도 중소기업 180개사(社)와 164개 문화예술단체가 결연을 맺었다.

예술단체 워크숍 개최

지난 5월 21일(화) 창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는 <2024 예술단체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협회는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의 첫 발걸음으로 도내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안내, 재원 조성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예술단체의 행정업무 수행 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열린 이 행사에는 예술단체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상생의 가치가 곳곳에서 실현되기를

시작에 앞서 석수근 전무는 “경남메세나협회가 경남도민의 애환심 고취를 위해 ‘도민의 노래 알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면서 “이 노래에 스며있는 것처럼 우리 경남의 곳곳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가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발현되고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지원금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과 예술단체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메세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개하겠다고 하면서 예술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별강연에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

특별강연에는 감자꽃 스튜디오 이선철 대표가 함께했다. 그는 대한민국 1세대 문화기획자로서 활동하다 20여년 전부터 강원도 평창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전개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 대표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영역을 경험한 전문가로서 지역을 살리는 예술과 기업의 역할과 상호 간 협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황성숙 팀장과 경남메세나협회 손수나 과장이 지방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지원금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과 예술단체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메세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개하겠다고 하면서 예술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예술단체 워크숍 설명 자료와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관련 서식은 경남메세나협회 홈페이지(www.gnmecenat.or.kr) ‘열린공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열린공간바로가기

Mecenat News

경남메세나협회 - 경남도립미술관 ‘문화협력 협약’ 체결



경남메세나협회와 경남도립미술관은 지난 1월 24일(수) 문화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남메세나협회 석수근 전무, 경남도립미술관 박금숙 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경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시 및 시각 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경남메세나협회 석수근 전무는 협약식에서 “이번 문화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경남메세나협회와 경남도립미술관이 문화예술 활성화에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립미술관 박금숙 관장도 “두 기관의 만남이 우리 지역 문화를 더 풍요롭게 하고, 도민들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경남메세나협회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지난 3월 경남메세나협회는 경남관광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도립미술관과 함께 ‘경남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의 문화예술과 미술, 관광 분야를 선도하는 4개 기관은 홍보·마케팅 협력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의 독특한 문화자원과 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및 활동들을 홍보함으로써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경남메세나협회 석수근 전무, 경남관광재단 황희곤 대표이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김종부 원장, 경남도립미술관 박금숙 관장이 참석하였다. 협약기관은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경남 건설을 위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경남메세나협회 -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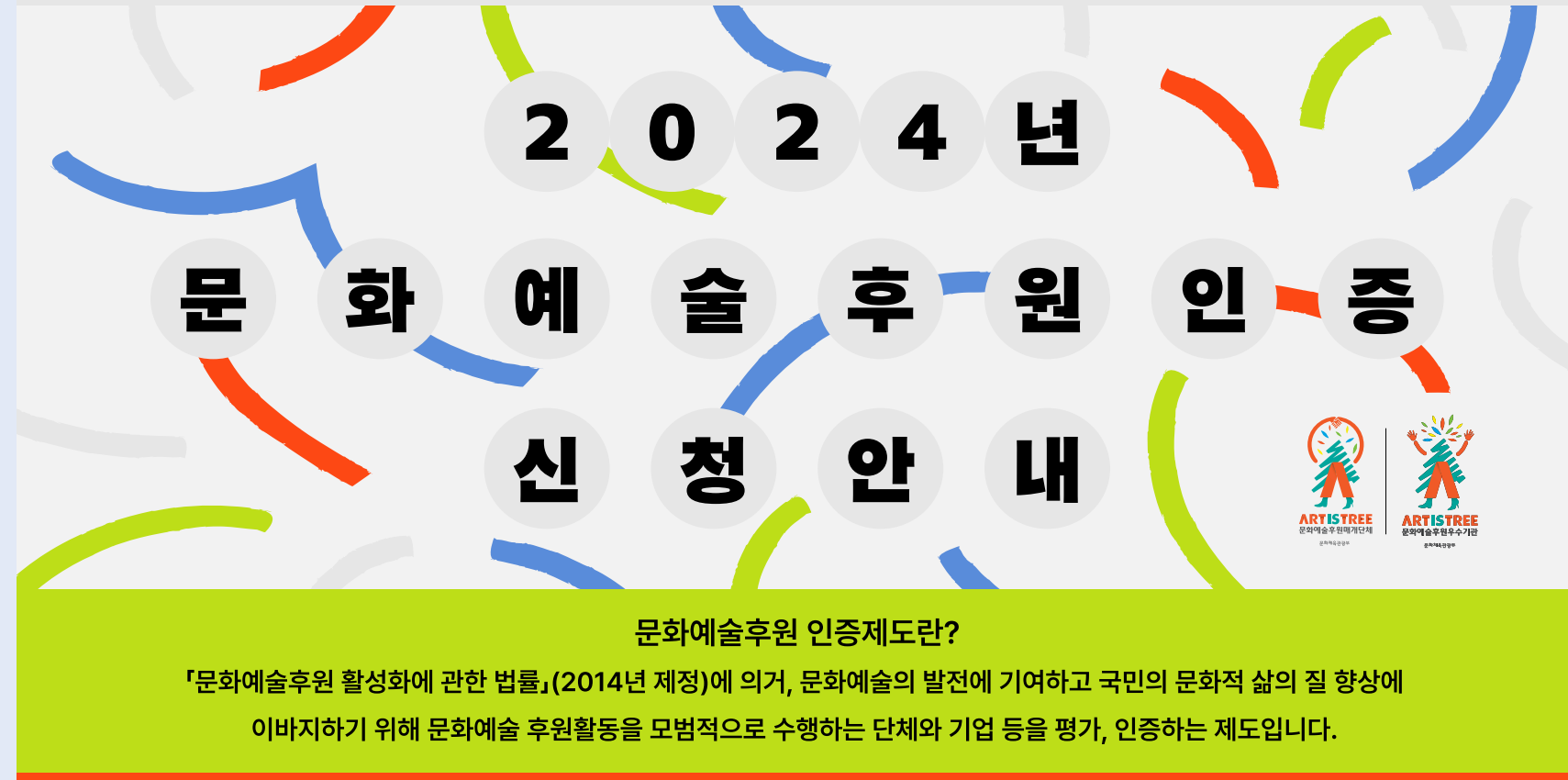


경남메세나협회와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6월 25일(화) 경남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남메세나협회 석수근 전무와 국립창원대학교 박종규

연구산학부총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간 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현 ▲현장 실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 지원 ▲지역 청년 예술인 양성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진작을 위한 상호 지원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경남메세나협회 석수근 전무는 협약식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경남 문화예술의 미래다. 청년 예술인들이 꿈과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남메세나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립창원대학교 박종규 연구산학부총장도 “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인증신청서, 최근 3개년 문화예술후원(매개) 실적 포함된 공적서 등

제출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www.arko.or.kr/supp/) 접수

제출기간 7.29(월)~9.25(수) 23:59까지

※별도 심사비는 없으며, 신청접수 기간 동안 신청자에 한해 사전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절차

인증 평가단이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후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현장평가에서는 제출서류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임직원 인터뷰를 실시하며 평가지표에 따라 조직역량, 운영체계, 후원(매개) 성과를 평가합니다. 최종적으로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인증 단체 및 기관(기업)을 결정합니다.

사전접수 및 사전컨설팅	7월 29일(월)~9월 25일(수)
현장평가	9월 30일(월)~10월 25일(금)
인증심의	10월 마지막주
결과발표	11월 첫째주
인증수여식	12월 첫째주

인증 혜택

- 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상 수여
-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언론홍보 (기획기사)
- 인증 사례집 발간, 배포
-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우수사례 견학)
- 문화향유 지원 (공연 관람 등)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아크로-대학로 예술극장 할인

매개단체

- 문화예술 후원매개사업비 보조금 지원
- KB금리 우대혜택 (중소, 중견기업)
- 유관기관 인증사업 신청 우대

우수기관

문의처

운영사무국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2-3786-0596/0167/0671
patron@kmac.co.kr
art_tree로 채널 추가 후 1:1 상담 가능

TALK 카카오톡 실행하기

Q 검색창에 art_tree 입력하기

PLUS 채널 추가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
Ch art_tree

Love like 사랑한다면 퐁파두르 부인처럼 Marquise de Pompadour

외형적인 모습이 상품화되어 버린 현대인들의 가치 기준 속에 특히 여성들에게 외모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얼굴과 행복한 순간을 이미지로 남겨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프랑스 왕 루이 15세의 정식 정부 퐁파두르 후작 부인(Marquise de Pompadour, 1721-1764)도 자신의 영향력을 그림 속 외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길 즐겨 했다. 그녀의 초상화 중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 스마트 폰으로 셀피(Selfie) 촬영한 듯한 모리스 캉탱 드 라투르(Maurice-Quentin de la Tour, 1704-1788)가 그린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이 눈길을 끈다. 그림은 5년여에 걸쳐 완성되었으며 거의 실물 크기로 그녀의 나르시시즘이 시각 이미지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장신구 하나 없는 투명한 피부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테이블 위 두꺼운 책들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인 디드로의 <백과전서>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라니! 그녀의 지적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다. 그밖에 가장자리 펼쳐져 있는 건축도면과 드로잉이 가득 담긴 스케치북, 의자 뒤 희미하게 묘사된 악기는 그녀가 그림 외 음악적 재능까지 두루 갖춘 르네상스형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퐁파두르 부인은 과연 그림과 같은 사회적 입지가 탄탄한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을까?

인류가 아름다움의 역사에 빠져있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우아했던 시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로코코 예술형식이 유행하였던 프랑스의 18세기이다.



모리스 캉탱 드 라투르,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 1755,종이에 파스텔, 177.5×131cm, 루브르박물관

처음 출발은 바로크를 모방하였지만 수정되고 변화되면서 로코코만의 양식이 귀족들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바로크는 강인함과 엄숙함이 깃든 거부할 수 없는 남성적인 힘을 과시했던 모양새였다면, 로코코는 숲, 정원을 배경으로 춤추거나 산책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일컫는 페트 갈랑트(Fête galante)의 등장과 파스텔톤의 은은함으로 바로크와는 차별화된 여성적인 미술로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 절대군주였던 태양왕 루이 14세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귀족들은 루이 14세 사후 곧바로 베르사유 궁전을 나와 자기들만의 문화와 예술을 만들었으니 럭셔리와 끝판왕인 가구와 패션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대중들의 욕망을 지배하였다. 18세기 프랑스

사회는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다 보니 국가 권력의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닌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계몽사상이 꽃피우기 시작하였다. 기득권만의 소유였던 지식 권력을 일반화시키는 계몽 활동은 지적인 사고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살롱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살롱의 여왕이라 부르는 퐁파두르 부인은 계몽의 산물인 <백과전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디드로와 몽테스키외 계몽사상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좌측부터) 1. 프랑수아 부세, <퐁파두르부인의 초상>, 1756, 캔버스에 유채
2.프랑수아 위베르 드루에,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 1763-4, 캔버스에 유채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고 이성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은 혁명 이념에 토대가 되어 18세기 말 미국 독립운동(1775-1783)과 프랑스 혁명(1789)에 큰 영향을 주었다. 평민 출신이었던 퐁파두르 부인이 귀족 신분이 아님에도 왕의 공식 후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가 가진 아름다움이 시들었는데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 동안이나 왕의 옆자리를 지키며 권세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퐁파두르 부인 내적 자본은 어린 시절 왕의 여자가 될 것이라는 점술가의 예언을 들은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후견인의 도움으로 푸아시에 있는 수도원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고 졸업 후에는 예술과 교양수업 등 그 시절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철학자와 예술가들을 후원해 프랑스 문화와 예술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현대의 미술사학자들은 그녀가 없었다면 로코코미술이 그렇게까지 꽃을 피우지 않았으리라 말을 할 정도이다.

그녀가 이룬 성과들을 살펴보면 귀족만 갈 수 있었던 왕립사관학교를 귀족이 아니라도 장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가난한 사람도 교육받고 능력 있으면 그에 준하는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 여파로 코르시카 이민자였던 나폴레옹도 장교가 될 수 있었다.

또 하나 수입에만 의존했던 도자기 국산화를 위해 제작소를 설치하여

세계적인 명품 도자기 세브르(Sevres)가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하게 받았던 교육의 힘은 루이 15세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친구이자 조인자로서 권력을 나눠 가지는 원인이 되었으며 왕비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하여 신임도 얻게 되었다. 그러한 요소들은 신분 상승한 그녀를 시기, 질투하는 무리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배경을 얻게 되었다. 예술과 학문에 조예가 깊은 최고의 후원자였던 퐁파두르 부인은 영원하지 않은 외모의 힘보다 내적인 교육의 힘으로 왕의 마음을 20년여 동안 사로잡았으니 그 결과는 그녀가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루이 15세와 정치적 동지로 함께 했다.

모리스 그림 외 프랑수아 부세(Francois Boucher, 1703-1770)와 드루에(Francois Hubert Drouais, 1727-1775)가 그린 퐁파두르 부인 초상화를 덩으로 소개한다. 퐁파두르 부인 초상화를 가장 많이 그린 부인이 총애했던 부세의 그림과 최신 패션 드레스를 정말 잘 표현했던 초상화 전문 화가 드루에의 그림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녀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을 묘사했던 부세의 그림과 달리 이중 턱으로 힘겹게 앉아있는 듯한 드루에의 그림은 퐁파두르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일 년 전의 모습이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문화 예술적인 자산들은 섬세하고 화려한 귀족문화를 대표하는 로코코미술 양식으로 분류되어 지금도 의상과 헤어분야에서 계속 연구되고 진화되어 가고 있다.



예술성과 대중적 흥행을 모두 이룬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은 작곡가 푸치니(G. Puccini) (1858~1924)는 기쁨과 슬픔, 환희와 좌절, 분노와 같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선율에 고스란히 녹여내고, 대중들이 어떤 부분에서 감동하고 어떤 부분을 좋아할지 감각적으로 짚어낸 작곡가다. 그러한 탁월함으로 푸치니는 비평가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오페라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위대한 작곡가 푸치니의 작품들을 만나보자.

1 ____ (좌측부터) 라보엠(경남오페라단 2014)
2 ____ 토스카(경남오페라단 2015)
3 ____ 투란도트(경남오페라단 2023)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

1858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루카에서 태어난 푸치니는 이탈리아 낭만주의 마지막 세대 작곡가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루카음악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푸치니는 17세 때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를 보고 오페라 작곡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23세에 밀라노 베르디음악원에 입학한 푸치니는 명성 높은 폰 키엘리 교수 문하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첫 작품 「빌리(1884)」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의 능력을 알아본 악보 출판사 리코르디는 바로 전속계약을 제안하고 그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리코르디는 당대 유명한 작곡가인 로시니, 베르디와 함께하며 대단히 위세를 떨치던 악보 출판사였는데 당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있던 터라 젊은 작곡가 푸치니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두 번째 오페라 「에드가」를 거쳐 세 번째 작품 「마농 레스코(1893)」로 첫 성공을 거둔다. 네 번째 오페라 「라 보엠(1896)」은 유럽을 넘어 미국에서도 크게 흥행하며 푸치니를 오페라계의 황태자로 등극시켰다. 이후 「토스카(1900)」와 「나비부인(1904)」이 연이어 흥행하며 그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안겼다.

대중의 마음과 트렌드를 읽어낸 푸치니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오페라 관객들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의 작품을 원했다. 푸치니는 이런 변화를 즉각 반영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특징인 아름다운 선율의 멜로드라마를 유지하면서도 독일 오페라 작곡기법을 적용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시켰다.

내용면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을 중독성 있는 선율로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냈다. 그를 스타로 만들어 준 작품 「라 보엠」은 파리의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우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특유의 서정적인 음악은 추운 겨울 가진 것 없는 시인 로돌포와 미미의 사랑을 감미롭게 또 슬프게 표현하며 애수에 빠져들게 한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혁명과와 왕당파가 대립하던 이탈리아 로마를 배경으로 화가 카바라도시와 그의 연인 오페라 가수 토스카, 그리고 그녀를 차지하려는 경찰장스카르피아 세 명의 대립을 다룬 「토스카」 또한 주옥같은 음악과 긴장감 넘치는 극적 전개로 푸치니의 최고 걸작으로 기억된다. 대표 아리아 '오묘한 조화', '별은 빛나건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는 한번 듣고 나면 좀처럼 잊히지 않고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다.

유럽 밖 배경의 이국적 오페라

푸치니는 새로운 흐름의 외국 음악과 미지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이국적 취향은 오페라 작품의 소재나 배경, 음악

작업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 나가사키항을 배경으로 한 「나비부인(1904)」, 미국 서부 시대가 배경인 「서부의 아가씨(1910)」, 중국 전설시대를 무대로 한 「투란도트(1926)」가 대표적이다. 오페라 「나비부인」은 어린 게이샤 초초상과 미 해군 장교 핑커톤의 결혼식 장면으로 시작해 초초상의 자결로 끝나는 비극적 내용이다. 초초상의 아리아 '어느 갠 날'과 여러 이중창, 그리고 극 전반에 흐르는 선율들은 가련한 여주인공 초초상을 더 가련한 여인으로 그려낸다. 미국 서부시대 탄광촌 술집 주인 미니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사랑에 빠진 무법자 딕 존슨, 그를 쫓는 보안관 잭 랜스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는 낭만적인 선율에 미국 전통가요와 인디언 민요가 접목되어 이국적이며 다채로운 느낌의 작품이다. 중국 전설시대 남성을 증오하는 투란도트 공주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목숨을 거는 칼라프 왕자의 도전이라는 다소 단순한 이야기인 오페라 「투란도트」는 그 내용보다 주요 아리아인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더 유명하다. 작곡 당시 푸치니는 「투란도트」의 3막 이중창 작곡을 남겨두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작이 된 미완성작 「투란도트」는 그의 밀라노 음악원 동기인 프란코 알피노에 의해 완성되었다.

푸치니의 새로운 시도와 캐릭터의 힘

당시 일부 비평가들은 푸치니의 음악이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멜로드라마적인 부분이 대중들의 큰 사랑을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 오늘날에도 그의 오페라는 영화나 TV시리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뮤지컬로도 재탄생했다. 「라 보엠」을 각색한 뮤지컬 「렌트」와 「나비부인」을 각색한 「미스 사이공」이 대표적이다.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사랑받는 푸치니 오페라의 힘은 무엇일까? 푸치니 오페라의 매력은 단연 연극적 요소가 강한 작품에 몰입감을 높이는 극적인 음악 표현이다. 극적인 서사를 복잡하지 않은 구조에 담아 유려한 선율로 휘몰아치며 어느새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거기에 음악을 통해 만들어진 생생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라 보엠」의 미미, 「토스카」의 토스카, 「나비부인」의 초초, 그의 캐릭터들은 음악적 깊이로 무장해 어느새 관객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요컨대 푸치니의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서정적인 멜로디, 단순하고 극적인 서사 그리고 등장인물의 생생한 캐릭터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복잡한 우리의 감정을 심플하게 정리해 한 올 한 올 아름다운 선율로 뽑아내는 그의 천재성은 독보적이다. 푸치니만이 할 수 있었던 그의 독창적인 오페라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깊은 울림으로 계속해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다음 세대까지 위대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player's Playlist



다양한 플랫폼들이 오픈되면서 이제는 전문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사무실이든 집이든 상관없이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일상이 되었고, 이는 참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허덕이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이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다. 퇴근길 밤공기를 맞으며 들으면 위로가 되는 노래 멍하니 누워서 듣기 좋은 음악, 감성을 일깨워 주는 영화, 옮겨올 방구석에서 읽기 좋은 도서, 한편의 시,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 등 무엇이든 어떤 이유든 상관없다. 그들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위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유희원 청년 트럼펫터(비라스 소속)

자기소개 경남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트럼펫터이며 여성금관5중주 비라스와 인디밴드 페이퍼리버, 경남재즈유니온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추천 콘텐츠와 추천 이유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 연주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랑을 받는 교향곡, 협주곡 등 다양한 작품에서 트럼펫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른 마디 쯤 쉬는 것은 예삿일이고, 150마디 동안 단 하나의 4분음표를 위해 기다리기도 하며 한 악장을 통째로 쉬는 일도 빈번한 일이다. 트럼펫 주자로서는 가끔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할 때도 있지만 기다리는 동안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아닌 관객이 되어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왜 비움의 미학이 중요한지 알게 된다.

포르테시모로 화려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내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피아니시모가 필요한 순간도 있다. 예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이뤄지는 비움은 비할 수 없이 큰 풍요를 가져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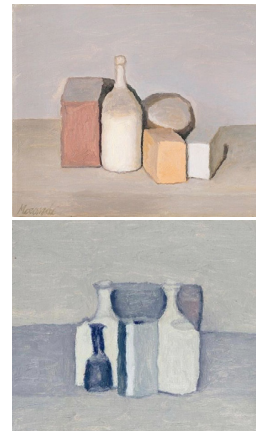
오늘 소개할 책인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에서 저자는 비움, 즉 미니멀리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요즘 한국에서 미니멀리즘이란 인테리어에 주로 적용되는 단어인데, 저자는 미니멀리즘을 향한 확일적이고 유행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단순히 하얀 벽에 최소화된 가구 배치, 무조건 최소의 물건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라고 말하는데, 오직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덜 중요한 것은 지워 버려라.'

현대인은 너무 많은 잡동사니를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다. 물리적, 정서적, 감정적 잡동사니들은 우리 삶의 행복과 안녕을 방해하며 인간 내면의 중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에너지를 채운다. 이 책을 통해 타인을 의식하느라 뻔하게 속아오던 가짜 욕망과 작별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진실 된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조르조 모란디

박형준 순수미술(사립153 소속)

자기소개 화려한 도시의 물질문명이 놓치고 있던 단순소박한 아름다움을, 여백을 통해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추천 콘텐츠와 추천 이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도시가 주는 빠른 삶의 속력은 우리를 고양이시키지만 때로는 우리를 침식시키기도 한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본질과 관련하여 현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화려한 물질문명 속에서는 단순 소박함에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이탈리아의 화가, 조르조 모란디(Giorgio Morandi)는 빠른 속도 속에서 놓쳐버린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해낸다. 그의 작품은 단순함 속에서 깊은 감동을 주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조르조 모란디는 1890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생을 거의 볼로냐에서 보냈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예술적 경력을 쌓아갔다. 모란디는 대도시의 화려한 생활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삶을 선호했는데, 이는 그의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모란디는 주로 정물화를 그렸고 그의 그림에는 병, 꽃병, 주전자, 상자 등 일상적인 물건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 물건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히 보일 수 있지만, 모란디는 그 속에서 색과 형태, 빛과 그림자의 미묘한 변화를 탐구했다.

모란디의 작품은 대체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는 화려한 색채나 복잡한 구도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고 절제된 색감과 구도를 통해 깊은 감정을 표현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모란디는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통해 삶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탐구했다. 그의 작품은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모란디의 작품은 전 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그의 고향인 볼로냐에 위치한 모란디 박물관(Museo Morandi)에서는 그의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조르조 모란디는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일상 속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전해주는 예술가이다. 그의 그림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모란디의 작품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힐링이 되길 바란다.

🎧 , (썬표)

주이안 바이올리니스트(프리랜서)

자기소개 저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무대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어,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콘텐츠와 추천 이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청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시작된 사회생활은 나이는 어른이지만 아직 어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하기엔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모습의 연속이었다. 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단순한 '썬'이 필요하다.

오늘 소개할 노래는 제목부터 '썬표'라는 곡이다. 단순히 하나의 기호로 표현되었지만,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는 깊은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노래는 친구가 보내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안에 있던 곡이었다. 친구와 자주 서로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며 음악 취향을 나눈다. 여러 곡들이 흘러나오던 중, 노래의 첫 소절인 "고생했다 오늘도"라는 가사에 순간 많은 위로를 받고, 노래 제목을 찾았다.

이 곡에 끌린 이유는 제목과 가사 때문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작은 썬표 하나를 통해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 노래를 들으면 하루의 끝에서 느끼는 무거운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곡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이나 일상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나 외로움 등 누구나 각자의 문제와 고민을 안고 버티고 있다. 버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고, 버티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난 후에 누군가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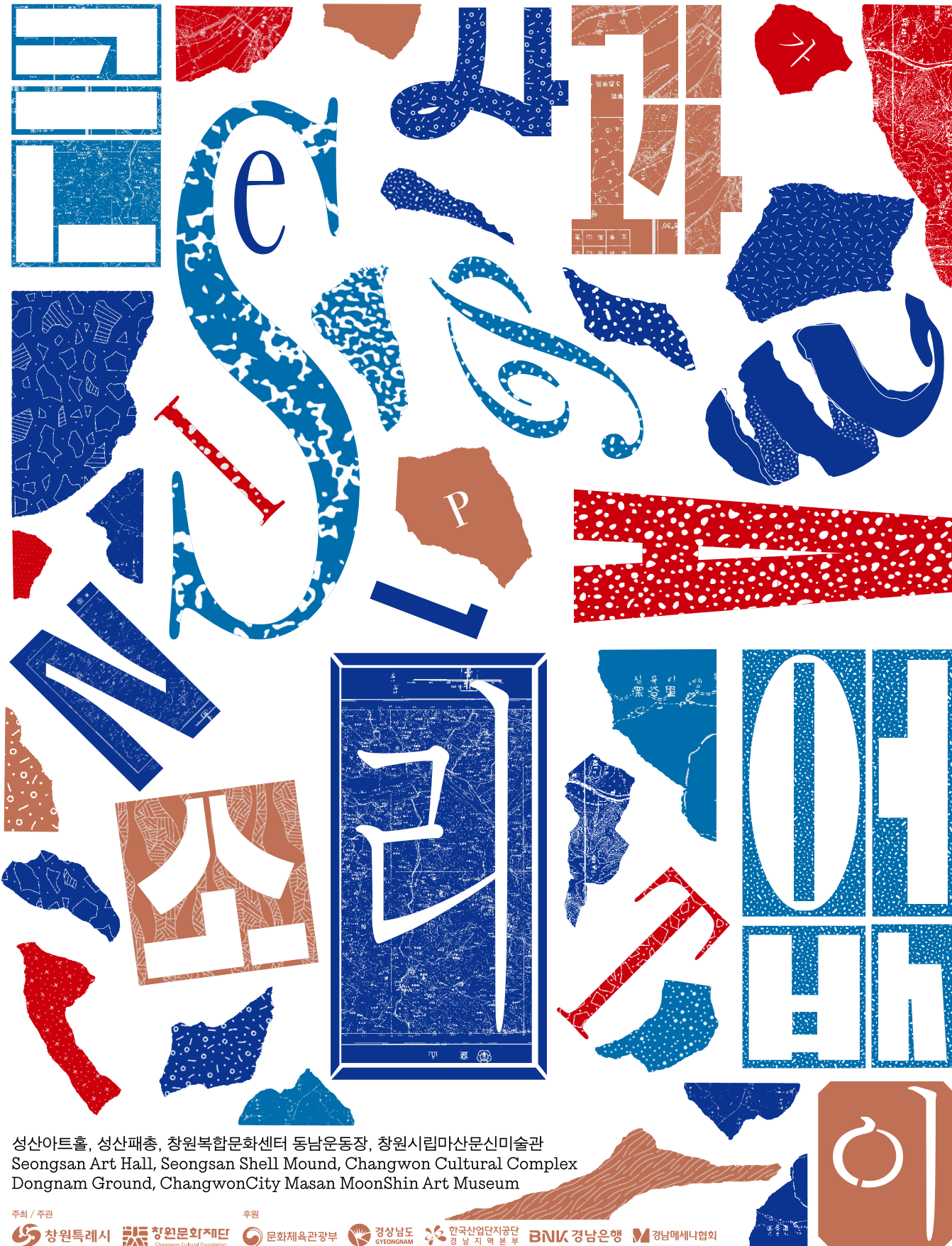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한마디일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노력을 인정해 주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또한, '썬표'는 그저 쉬어가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자기 자신, 나아갈 방향을 잃기도 한다. 그런 순간에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문장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이어 나가는 썬표처럼, 그 순간을 썬표로 만들어 줄 이 노래가 다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THE 7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큰 사과가
소리없이
silent apple

2024.
9. 27. - 11. 10.



성산아트홀, 성산패총, 창원복합문화센터 동남운동장,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Seongsan Art Hall, Seongsan Shell Mound, Changwon Cultural Complex
Dongnam Ground,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주최 / 주관 후원
창원특례시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GYEONGNAM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BNK 경남은행 경남메세나협회

창원문화재단

3·15 ART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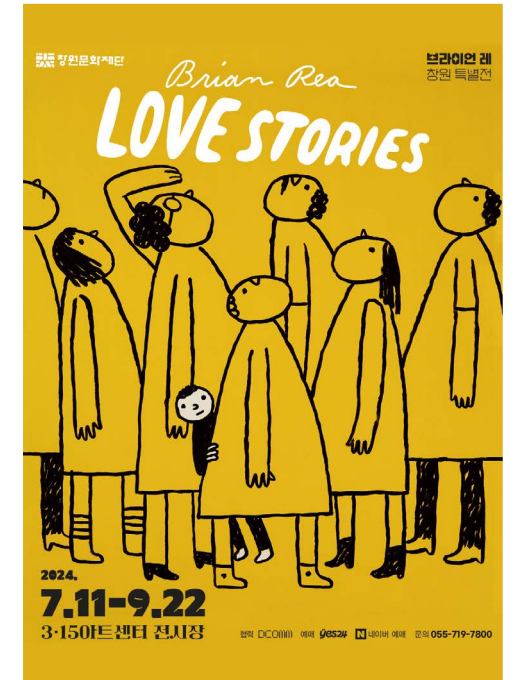
3·15아트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 8.16.(금) 19:30 8.17.(토) 14:00 3·15아트센터 대극장
- VIP석 8만원 | R석 6만원 5석 4만원 | A석 2만원 7세 이상 관람가 (취학아동 이상 관람가)

시즌 | 발레



여름 특별기획전
브라이언 레: LOVE STORIES

- 원액 (썬)커뮤니케이션 7.11.(목)~9.22.(일) 3·15아트센터 1~3전시실
- 일반 1만원 | 학생 7천원 어린이 5천원(36개월 이하 무료) 전체 관람가

시즌 | 전시



정기 | 음악
SUPER! 수요일콘서트
조선x남미 그루브 클럽

- 8.28.(수) 19:30 3·15아트센터 소극장
- 전석 2만원 7세 이상 관람가 (취학아동 이상 관람가)



지속 | 축제
2024 블루베이
뮤직 페스티벌

- 9.7.(토) 17:00 3·15해양누리공원
- 전석 무료 전체 관람가



정기 | 다원
SUPER! 수요일콘서트
앙리마티스 콘서트
존노, 박정민, 신현선 등

- 10.30.(수) 19:30 3·15아트센터 대극장
- R석 4만원 | S석 3만원 7세 이상 관람가 (취학아동 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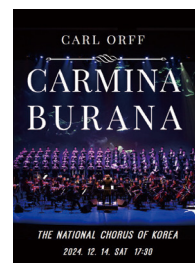
시즌 | 연극
극단 마방진 x 리빙시어터
연극 로제타

- 10.11.(금) 19:30 10.12.(토) 14:00 3·15아트센터 대극장
- 전석 2만원 7세 이상 관람가



산학 | 뮤지컬
뮤지컬 장 담그는 날
경남대 문화콘텐츠학과, 뮤지컬?뮤지컬.뮤지컬!

- 11.8.(금)~11.10.(일) 3·15아트센터 소극장
- 전석 무료 7세 이상 관람가 (취학아동 이상 관람가)



시즌 | 합창
송년특집 국립합창단
카르미나 부라나

- 12.14.(토) 17:30 3·15아트센터 대극장
- R석 3만원 | S석 2만원 A석 1만원 7세 이상 관람가 (취학아동 이상 관람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선정 공연

접근성 활성화
Opera

라보에

2024.
9.13 (금)
19:30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료 전석 1만원 예매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s://gasc.ghct.or.kr>), YES24 티켓

문의 055.320.1234 <https://gasc.ghct.or.kr>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2024 Great Season

경남문화예술회관 2024 하반기 기획공연

패키지 티켓오픈 7. 16.(화) 11:00 | 티켓오픈 7. 19.(금) 11:00 | 문의 1544-6711



국립합창단 전쟁 그리고 평화
8. 27.(화) 19:30



조수미 콘서트 in LOVE
9. 3.(화) 19:30



피아니스트 박재홍 리사이를
9. 26.(목) 19:30



판소리 동화 콘서트 자라는 자라
10. 19.(토) 15:00



프라임필하모닉 헤르만 헤세의 음악세계
10. 31.(목) 19:30



뮤지컬 파가니니
11. 8.(금) 19:30, 11. 9.(토) 15:00



종이 꽃발: 두합망본풀이
12. 7.(토) 15:00



창작발레 레미제라블
12. 13.(금) 19:30, 12. 14.(토) 15:00



2024 송년 콘서트 Epilogue
12. 19.(목) 19:30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회장사
BNK경남은행
부회장사
NH농협 경남본부 (주)다우링에너지 (주)무학 범한산업(주) (주)씨티알 우수AMS(주) (주)인산가 임경숙 (주)한국아나세 (주)화인테크놀로지
이사사
경남오페라단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경원벤티크(주) 고성오광대보존회 (주)리베라관광개발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주) 영광산업(주) 원광건설(주) 창원대학교 음악과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화성G&(주) (주)대양산업가스 청호산업(유)

회원사

가야BBS(주)	(합)대신전기공업사	(주)성환금속	(주)지엔티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주)대중이엔에프	(주)세북	진해성모병원
가야오페라단	대주회계법인 경남지사	세아창원특수강	창원상공회의소
(주)가온아이엔씨	(주)대호테크	(주)세양정공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거명인텍	더 스페이스 갤러리	(주)세중씨엔지	청아의료재단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주)덕광중공업	(주)세호	최익수의원
경남개발공사	(주)도원리사이클링	송죽전장	추고쿠상화페인트(주)
(사)경남가독문화원	(주)동구기업	신광에이스전기(주)	캠코 경남지역본부
경남도립미술관	동성정공	신요푸드시스템(주)	(주)케이조선
경남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주)동은화학	신창기계(주)	코리아합창제조직위원회
경남스틸(주)	동진해금(주)	(주)세노텍	(주)코알건설(창신한건설)
경남신문사	두남화학	아나파약국	(주)코텍
경남자동차판매(주)	(주)두산중장비센터	아진기계	태민산업(주)
경원여객자동차(주)	디씨엔(주)	(주)애드테크	태영엔지니어링
(주)경한코리아	디케이리크(주)	(주)에스	테라사이언스(주)
(주)고려이노테크	라운산업개발(주)	에이스브이	티케이지태광(주)
(주)고려철강	(주)마창대교	(주)에이스코트	(주)포스텍
고운가이드치과병원	명제한의원	에코시스템(주)	푸주옥
고운선치과의원	몽고식품(주)	(주)엔지피	피케이밸브엔지니어링(주)
고운치과병원	무림페이퍼(주)	(주)영신오토모티브	하동 케이블카(주)
광득건설(주)	문운수치과의원	(주)영일정공	하이 에어코리아(주)
광신기계공업(주)	미르치과의원	(주)영진테크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
(주)구구	미조종합건설(주)	(주)영창기업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주)국제전기	미즈맘 여성병원	예인여성병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주)국토보상원	법무법인미래로	(주)옥산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	(주)보덕건설	오션커뮤니케이션즈	한국소니전자(주)
그린산업(주)	(주)봉림장학회	(주)육산아이엘티	한국정기공업(주)
그림갤러리(주)	(주)부경	원광산업석재	한국제강(주)
(주)금강종합건설	부곡스파디움	(주)웰템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주)금술개발	부산교통(주)	유림건설(주)	한국태양유전(주)
(주)금아하이드파워	부성자동차학원	윤한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기산산업	(주)부평디엔피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김순태치과의원	(주)북성산업	의료법인성년의료재단	(주)한반도
(유)김해공영	(주)사릭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주)한창테크
김해상공회의소	(주)산호수출포장	(주)이나인파워텍	(주)해드림엘피씨
낙우산업(주)	삼우금속공업(주)	이수디엔씨(주)	해성메탈(주)
(주)남광디씨텍	삼원동관(주)	(주)이우	현대공영(주)
남명산업개발(주)	삼일정보시스템(주)	이피씨	(주)현대기업
남양매직(주)	(주)삼전건설	인산죽염(주)	현대로템
늘푸른 요양병원	삼정기업	인화정공(주)	(주)혜동
당당한방병원	(주)삼정터빈	(주)잇편	(주)호텔인터내셔널
(주)대경	삼흥열처리	(주)장생도라지	흥기종합건설(주)
대경건설(주)	삼흥테크(주)	(주)장성E.P.S	화영철강(주)
(주)대길티에프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주)정문애드테크	화이트치과
대방스페셜스틸(주)	상화도장개발(유)	제일레스텍	흥일기업(주)
대선주조(주)	(주)서영시스템	(주)줄은콘서트	JM성형외과
(주)대승엔지니어링	선린자모의원	중앙건설(주)	STX엔진(주)
대신금속(주)	(주)성우	(주)중앙금속	the큰병원

회원 가입 안내

가입대상	연회비	가입절차
기업	200만원 이상	입회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gnmecenat.or.kr 
개인	100만원 이상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가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 **결연사업** 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 **예술단체 워크숍**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Member Support Projects

- **찾아가는 공연** 기업 임직원과 고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직접 기획하여 제공합니다.
- **문화공감** 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회원사에 우수문화행사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 **문화경영도서** 문화예술을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문화경영도서를 선정하여 회원사에 전달합니다.
- **예술 동아리 지원** 사내 문화예술 동아리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 **지정기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회원사 메세나 활동 홍보** 회원사와의 협력사업을 메세나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 **행복한 나눔공연**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즐거운 나눔티켓**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 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 **경남메세나포럼** 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지역문화특화사업**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 **찾아가는 메세나** 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약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 및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연구보고서 발간**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 **경남메세나대상**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 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홈페이지

We Open Optimus Sustainable Universe
Advanced Mobility Specialist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어나가는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우수AMS**



우수AMS(주)



우수AMS(주) CASCO



(주)우수TMM



우수정기(주)



우수India(주)



WOOSUAMS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62(신촌동)

절친같은
저축은행

언제나 든든한 절친처럼
당신과 더 가까운
저축은행입니다



 **조흥저축은행**

언제나 힘이되는 지역금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The Space Gallery

더 스페이스 갤러리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53-8
055.322.8090



- 작품 전시
- 공간연결/대관
 - 교육/세미나
 - 단체모임
- 원데이 각종 특강

The Space Gallery 더 스페이스 갤러리

055. 322. 8090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지역과 고객에 큰 힘이 되는 상생금융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엔+ 고객엔^α **BNK** 금융그룹 **경남은행**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MECENAT
with you



-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